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담화표지 ‘이제’의 운율적 특징과 화용적 기능



2011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어 국 문 학 과

이 임 라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담화표지 ‘이제’의 운율적 특징과 화용적 기능

지도교수 김 희 섭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어 국 문 학 과

이 임 라

이임라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1년 2월 일



주 심 문학박사 조 미 정 (인)

위 원 문학박사 채 영 희 (인)

위 원 문학박사 김 희 섭 (인)

목 차

◎ 영문요지(Abstract)

I. 서론	1
1.1. 연구 목적	2
1.2. 담화표지에 대한 선행 연구	4
1.3. 연구 방법	9
II. 이론적 배경	11
2.1. 담화의 개념 및 특성	11
2.2. 담화표지의 개념 및 특성	14
2.3. 담화표지의 유형	16
2.4. 담화표지 ‘이제’의 화용적 기능	19
III. 담화표지 ‘이제’의 운율적 특징과 화용적 기능	26
3.1. ‘쉽’ 대응 표지	30
3.2. 시제 전환 표지	36
3.3. 담화 전개 표지	42
3.4. 후행 발화 강조 표지	45
3.5. 망설임 표지	49
IV. 담화표지 ‘이제’ · 시간부사 ‘이제’	55
4.1. 담화표지 ‘이제’와 시간부사 ‘이제’의 비교	55
4.2. 화자에 따른 ‘이제’의 사용 양상 비교	63
V. 결론	65
◎ 참고 문헌	69

A Prosodic Feature and Pragmatic Function of 'Ice'

Ihm Ra Le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research examined the pragmatic function of 'Ice' which appears frequently on the beginning of speaking by measuring its rhythmical characteristics such as pitch, length, intensity and pause. Based on a premise that the meaning of 'Ice' is in transition to the discourse marker from the lexical meaning of time-adverb, it was identified that there exist two 'Ice' which express the current speaking time or normal time and also express the conversion of any situation or narrator's emotion.

This research has following limitations. First, it shall be difficult to make the pramatic marker, which could be a personal character generalized because interviews of only three candidates were analyzed. Second, there shall be some limitations because this study examined data obtained from TV interviews which cannot be considered as perfect colloquial language data. However, the character

of the narrator shall be disclosed despite of a limitation of TV broadcast, and estimated that the analysis of the interviews shall be sufficient to understand rhythmical features of the discourse and study its pragmatic function.

The findings of the existing researches on the discourse marker 'Ice' present that 'Ice' is likely to be shorter than the time-adverb of 'Ice' in length of utterance, and to be connected to the pause of the preceding utterance or the following utterance. However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ndicate the utterance length of 'Ice' could be shorter than that of the discourse marker depending on mentality of the narrator, or sometimes the pause shall not be appeared.

When examining the pause placed on before or after 'Ice', 'Ice' shall be often spoken out while the pause doesn't appear. The fact that 'Ice' shall be connected to before or after the utterance without the pause illustrates that 'Ice' itself plays a role of the pause. The 'pause' is a unit of the intonation, expresses a joint of thoughts and sometimes plays a role to focus on the following utterance. In addition, it reduces a burden of the listener as well as the narrator who continues speaking. Besides, the discourse marker, 'Ice' was shown to connect the preceding utterance and the following utterance semantically or to delay the utterance while stresses or hesitates the following speaking.

This research also examined that 'Ice' was realized as a [Tense Converting Marker] in the discourse. Events can be described more

in vivid through 'Ice' which provisionally converts the tense, and the intimacy between the narrator and listener can be increased by a common sense created by 'Ice'. Such a [Tense Converting Marker] could be available because 'Ice' is derived from the lexical meaning of the time-adverb and has a meaning to implicate a conversion of the situation.

In addition, the frequency of using 'Ice' by the narrators was ranged from one to five times according to their speaking habits. The narrators who mainly use 'Ice' as a time-adverb were seen to substitute the pragmatic function which the discourse marker 'Ice' has, by using another linguistic device instead of 'Ice'.

The language has a property to be governed by a general rule. As a correct sentence is formed by combining several words in accordance with a general rule and principle not by just arranging them in random, a smooth communication shall be available by not only a correct pronunciation but also prosodic features in speaking discourse.

I. 서론

입말은 인간 언어의 기원을 이루는 언어이며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대부분의 의사소통을 말에 의존하고 있다. 언어의 발달 또한 입말 형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화용론이나 담화 분석 연구 등은 입말 연구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다. 본고에서도 언어 연구의 본질적인 특성을 입말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한국어 담화표지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입말로서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음성 분석 작업을 병행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자료는 TV 인터뷰 프로그램에 출연한 출연자의 담화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한국어의 담화표지 중에서 공간적·계층적으로 보편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이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담화에서 실현되는 ‘이제’는 지역적, 개인적 특성으로 인한 ‘인제, 인자, 인저, 은제’ 등의 다양한 입말 변이형이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제’를 담화표지의 기본형으로 설정하였다.

I 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 연구를 통해 연구의 방향과 연구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II 장에서는 국내에서 논의된 연구를 중심으로 담화와 담화표지의 개념 및 특성, 유형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담화표지 ‘이제’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III 장에서는 담화표지 ‘이제’와 시간부사 ‘이제’의 운율적 특징을 분석하여 ‘이제’가 담화 맥락에서 어떠한 화용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IV 장에서는 시간부사 ‘이제’와 담화표지 ‘이제’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고, 화자에 따라 이들 표지를 사용하는 데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V 장에서는 본 연구가 지닌 한계점을 짚어보고, 본고의 논의 결과를 정리할 것이다.

1.1. 연구 목적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글말보다 입말의 비중이 높음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글말과 달리 입말은 상황에 의존적이며, 대화 중에 계획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생략과 수정이 자주 일어나고 글말 문법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특히 입말 연구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담화 차원에서 나타나는 담화표지는 대화 참여자인 청자가 화자의 심리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외국어 교육의 말하기나 듣기 영역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말 담화에 나타나는 담화표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는데, 개인별 특색을 지니고 있는 모든 담화표지를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제’로 제한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말을 하는 동안 사람들은 끊임없이 손짓, 발짓, 몸짓을 하고 다양한 표정을 하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바로 자신의 발화를 청자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비언어적 장치로 볼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언어적 장치 중에서 발화 의미나 정보 전달에는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언어표현이 입말 담화에서는 섞여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언어 표현에 수반되는 몸짓과 마찬가지로 언어 사용에 있어서 정보 전달에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특징의 어휘를 덧붙태어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심리를 알리고자 하는 화자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덧붙태말은 담화표지, 화용표지, 간투사 등의 다양한 용어로 정의되고, 연구자에 따라 그 범위와 의미, 기능이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덧붙태말의 정의나 개념을 다룬다든지, 혹은 화용표지로서의 기능을 다루고 있다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기존의 연구에서는 담화표지가 입말의 특성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입말 자료를 문자화된 자료로 주로 다루고 있는 점이 아쉽게 느껴졌다. 대다수 기존연구의 결론 부분에서 이러한 점을 연구의 한계라고 밝히고 있으면서도 음성적 특징에 대해 고찰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간략하게 언급되고 있는 담화표지의 음성적 특징을 음성 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이기갑(1995:267-268)에서 담화표지 ‘이제’가 문장 앞에 나타나는 경우에 앞말과는 쉽이 있고 뒷말에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그 밖의 다른 경우는 대체로 앞말과 이어지며 뒷말과는 쉽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반면 시간부사는 대체로 앞말과의 사이에 쉽이 있고 뒷말에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담화표지는 생략되어도 의미에 손상이 없으나 시간부사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담화표지 ‘이제’에 대해 이와 같은 쉽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시간부사의 경우 생략되면 의미에 손상이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 (1) (가) 이제 뭘 하지? ⇒ Ø 영화 보러 가자.
 (나) Ø 뭘 하지? ⇒ 이제 영화 보러 가자.
 (다) Ø 뭘 하지? ⇒ Ø 영화 보러 가자.

위와 같은 예문(1)은 시험을 끝내고 교실을 나서면서 친구들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의 일부분이다. (1-가), (1-나) 예문에서 ‘이제’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볼 것인가? 생략하면 의미에 손상이 있다고 볼 것인가? 만약 생략했을 때 의미에 손상이 없다면 ‘이제’는 담화표지로 사용되었다고 볼 것인가? 생략되었을 때 명제적 의미의 손상 유무에 대한 판단은 운율적 특징을 함께 고찰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본 연구자의 판단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담화표지 ‘이제’의 운

율적 특징을 다시 검토해 보고 ‘이제’의 화용적 기능을 음성 분석 결과를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1.2. 담화표지에 대한 선행 연구

이기갑(1995)에 따르면 담화표지 ‘이제’가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선행 발화와 후행 발화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데, 선행 발화를 매듭짓거나, 선행 발화와 후행 발화를 의미적으로 연결하거나, 후행 발화에 초점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의미적 연결은 유표적 연결과 무표적 연결로 나눌 수 있는데, 연결어미, 대용어, 반복 구문 등이 유표적 연결에 해당하고, 주제-논평 관계, 보완관계, 배경-전경 관계, 나열 관계, 전환 관계, 연속 관계 등은 무표적 연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시간부사 ‘이제’가 어휘적 의미를 지니고 문장 안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의미적 요소라면, 담화표지 ‘이제’는 단순히 담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이 수의적으로 사용하는 담화의 한 장치라고 밝혔다. 그리고 시간부사 ‘이제’에는 조사가 붙을 수 있지만 담화표지 ‘이제’에는 조사가 붙지 않고, 담화표지 ‘이제’는 시간부사 ‘이제’와 함께 쓰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담화표지 ‘이제’는 문장 앞에 나타나는 경우 앞말과는 쉽이 있고 뒷말에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그 밖의 다른 경우는 대체로 앞말과 이어지며 뒷말과는 쉽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반면 시간부사는 대체로 앞말과의 사이에 쉽이 있고 뒷말에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담화표지는 생략되어도 의미에 손상이 없으나 시간부사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임규홍(1996)은 우리말 담화표지에 대한 개념과 갈래를 나름대로 정리하고, 시간부사 ‘이제’가 담화표지 ‘인자’로 전이되는 과정과 ‘인자’의 담

화적 특성 및 기능을 밝혔다. 자료는 한국구비문학대계의 설화부분과 진양군 대평면의 구비문학 중 설화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주미경(1996)은 영어 담화표지 ‘well, you know, I mean’을 대상으로 담화표지가 실현되는 위치에 따라 기능을 고찰하였다. ‘you know’는 공유지식 확인표지, 관심 획득표지, 수정표지, 종결표지로 사용되는 반면, ‘I mean’은 도입표지, 재조정 표지, 수정표지, 매움자 기능을 한다고 밝혔다. 미국 TV프로그램의 대화를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담화표지 사용빈도의 차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 위치에 따른 빈도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백용학(1999)은 기존의 담화표지의 기능, 담화표지의 위치 등을 정리하고, 기존학자들이 제시한 담화표지를 고찰하여 종합적인 담화표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이정애(1999)는 구어자료에 나타난 화용표지를 대상으로 하여 국어화용표지의 양상과 담화기능을 고찰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화용표지의 개념과 발달 구조를 기술하기 위해 기본 용어의 규정과 이론적 배경을 다루었는데, 특히 문법화의 이론적 배경과 화용표지의 의미전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문법화는 화용표지의 발달을 설명할 수 있는 화용적 변화의 원리를 제시하는데, 일반화의 과정 또는 의미 내용의 약화와 관련되어 있다. 즉 의미가 일반화되고 사용역이 넓어짐에 따라 사용빈도는 증가하며 이것은 자동적으로 음운론적 축약과 융합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화용표지 중에서 ‘이제, 이/그/저, 그냥, 뭐’의 발달과 담화기능을 고찰하여 시간적 의미를 지닌 시간부사, 지시사, 의문사 등에서 전성된 담화표지가 담화상의 텍스트적 의미와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다양하게 표출한다고 밝혔다.

차윤정(2000a)은 이음말의 기능을 대용기능, 이음기능, 담화표지기능으

로 보았는데 담화표지기능은 도입표지, 전개표지, 결말표지, 전환표지가 있고, 구어 텍스트에서만 나타나는 기능으로는 공백 메우기표지와, 들을이 반응표지가 있다고 논의하였다. 담화표지의 기능은 협력의 원리와 관련되는데, 들을이가 말할이의 발화내용에 반응하여 발화의 진행을 재촉한다거나 동의를 표현하는 것 등이 이에 속한다.

김향화(2002)는 기능 전이의 여부, 의미 변화의 여부, 수의성의 여부를 제시함으로써 담화표지를 식별하는 기준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가만, 참, 말이다, 왜, 있잖아’ 등의 담화표지에 대한 통사적 문제를 분포와 공존 제약으로 나누어 살폈는데, 다양한 양상은 모두 담화표지의 기능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밝혔다.

문병우(2002)는 ‘-요’의 분포가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을 문제로 삼으면서, 문말에 위치한 ‘-요’는 청자 존대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고, 문중에 위치한 ‘-요’는 [친밀감]이나 [주의 환기] 등의 화용적 의미로 사용된다고 보았다.

전영옥(2002)은 기존 연구에 나타난 담화 표지의 정의를 제시하고, 담화표지의 실현 환경, 실현 형식, 운율적 특징, 형태적 특징, 통사적 특징, 의미적 특징, 화용적 특징에 대해 논의하였다. 억양 단위의 끝에 나타나는 담화표지로는 ‘뭐, 음, 어, 예, 말이야, 있지, -요’ 등인데, 이들은 주로 다음 발화를 준비하는 디딤말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디딤말의 기능을 가지는 동시에 발화자의 심리적 태도가 담겨 있어, 자신의 생각을 좀 더 강하게 표현한다든지, 상대방의 반응을 요구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보았다.

이희정(2003)은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대화를 분석하여 ‘그러-’형 담화표지의 전체 빈도 및 입말 변이형을 살펴보고 기능별 사용 빈도를 추출하였고, 두 집단 간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한국

어 고급 학습자는 일부 담화표지를 한국어 모어 화자가 사용하는 기능으로 사용하지만 사용빈도가 떨어지고,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담화전략으로 사용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글말 표준형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자(2003)는 담화표지의 유형을 본디담화표지와 바뀐담화표지로 나누고 바뀐담화표지는 어떠한 문법화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바뀐담화표지를 단어와 구의 형태로 나누어 통사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본디담화표지에는 감탄사, 일부 부사어, 일부 지시어, 운소 등을 들 수 있는데, ‘어, 자, 저, 아뿔사, 아이고, 예, 여보게’ 등의 감탄사와 ‘정말, 만세, 이런, 저런, 그렇지’ 등의 전성감탄사를 예로 들었고, ‘그래서, 그러나’ 등의 접속부사와 ‘이, 그, 저’와 같은 지시관형사, 그 밖에 억양, 씬, 강세와 같은 운소를 본디담화표지로 분류하였다. 바뀐담화표지는 특정의 의미를 지닌 단어가 문법화하여 본래의 의미를 잃고 담화적 기능만을 가지게 된 경우로 ‘사장님류, 거시기, 무슨, 이제, 말이야’ 등 스무 종류의 담화표지를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바뀐담화표지의 통사적 제약이 각 담화표지의 문법화 이전 형태인 어휘적 의미에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을 하고 검증하였다. 문장의 첫머리와 가운데, 맨끝을 가리지 않는 자유분포형과 제약을 받는 제약분포형으로 나누고 제약분포형을 더욱 세분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마침법은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에서 어떤 통사적 제약을 받는지 고찰하였는데, 역시 본래의 어휘적 의미의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에서 살펴보았다. 아무 제약 없이 두루 쓰이는 자유형에는 ‘가만, 거시기, 그냥, 말이야, 뭐, 뭘, 사장님류, -요, 저기, 참’ 등의 열 가지가 있고, ‘이제’는 의문문제약, ‘있잖아, 어디, 왜’ 등은 감탄문제약, ‘무슨, 웬, 뭐야’ 등은 명령청유문제약, ‘아니’는 평서명령청유문제약이 따르는 담화표지로 분류하였다.

서희정(2010)은 담화표지가 명제 의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생략이 가능하다는 특성으로 인해 한국어 교육에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학습자의 한국어 구사 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어 모어 화자와의 대화 기회가 많아지면서 발화 태도에도 주의를 기울이게 되므로 담화표지의 교육적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한국어 모어 화자에 가까운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은 한국어 학습자의 궁극적 목표라 할 수 있는데, 자신의 발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발화 태도를 분명히 함으로써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담화표지는 화자의 발화 태도를 보일 수 있는 효율적인 담화 기제라는 점에서 한국어 교육에서 마땅히 다루어야 할 교육 항목이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말이다’의 용례를 일부 드라마 대본에서 추출하여 ‘말이다’가 운용되는 담화 상황이나 대화 참여자들의 관계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한국어 교육에서 담화표지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선행 연구를 검토해보면, 담화표지의 기능과 의미의 측면에서 대부분 다루어졌고, 담화표지의 정의에 대해서는 서로 유사성을 지니고 있지만 범위나 인식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한국어의 담화표지 연구를 살펴보면 수집된 음성 데이터를 문자화하여 자료로 다루는 연구가 대부분이고 담화표지의 유형이나 의미 분석, 문법화 과정에 집중되어 있어서 담화표지가 지닌 음성언어의 특징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 음성언어를 문자화하면 구어의 음운적 특징을 쉽게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직관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1) 김희섭(2006:2)에서 “언어학사는 음운론 이론의 변천사라 할 정도로 일반 언어학에서 말소리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어 담화표지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 있어서는 말소리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없다.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담화표지가 지닌 음성언어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러한 음성언어의 특징이 화용적 기능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1.3. 연구 방법

음의 높낮이, 발화 길이, 음의 세기, 쉼 등은 입말로 표현되는 모든 언어의 전달에 있어서 화자의 발화 태도를 전달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잘 했다’와 같은 문장을 발화할 때 음의 높낮이, 발화 길이, 음의 세기, 쉼에 따라 칭찬하는 뜻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비난하는 뜻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경북 일부 지역의 방언에서는 물음표로도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이다. 따라서 입말에서만 나타나는 담화표지의 특징을 논함에 있어서 이러한 운율적 자질²⁾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판단할 수 있다.

담화표지는 입말 담화에서만 실현되는 표지이므로 운율적 특징을 제외하고서 논할 수 없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 담화표지의 운율적 특징에 대해 소략하게 언급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운율적 특징을 고찰한 논문은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담화표지 ‘이제’의 운율적 특징 중에서 음의 높낮이, 길이, 세기, 앞뒤에 놓이는 쉼 등을 분석하여 이러한 요소들이 담화표지 ‘이제’의 화용적 기능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라는 TV 인터뷰 프로그램에 출연한 세 명의 출연자의 발화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 Ann Wennerstrom(2001:129)에서 원래의 어휘에서 담화표지로 바뀔 때 억양과 같은 운율적 자질이 명확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억양의 차이는 인식가능하고 측정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들 출연자들의 발화 중에서 ‘이제’의 운율적 자질을 분석하였다.³⁾ 모두 111개의 ‘이제’가 추출되었는데, 이들 자료 중에서 담화표지가 아닌 시간 부사로서 쓰인 것도 있음을 감안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제’가 시간부사로서 쓰일 때와 담화표지로서 쓰일 때 운율적 요소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떠한 화용적 기능을 하는지, 발화자에 따라 ‘이제’의 사용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 수집은 ‘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 출연자 중에서 담화표지 ‘이제’를 빈번히 사용하는 출연자 세 명⁴⁾을 선정하여 먼저 전사 작업⁵⁾을 실시하

3) 사회자의 발화 내용은 담화의 전후 맥락을 이해하는 데 사용할 뿐 담화표지 ‘이제’가 사회자의 발언에 나타나더라도 본고에서는 자료로 다루지 않았다. 사회자가 여자인데, 여자의 발화 음역은 남자와 차이가 있어서 음의 높낮이, 세기 등을 비교하는 데에 적절하지 않고 사회자는 입말 훈련이 잘 된 사람이기 때문에 담화표지가 나타나는 양상이 일반인과는 다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4) 출연자 3명은 ‘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에 출연한 ‘김동길, 강우석, 이순재’인데, 앞으로의 논의에서 ‘김동길’은 ‘발화자 A’로, ‘강우석’은 ‘발화자 B’로, ‘이순재’는 ‘발화자 C’로 표기함을 밝힌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http://www.naver.com>)’에서 검색한 출연자들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발화자	방송 일자	이름	직업, 경력	출생년도, 출생지역
A	2009. 07. 12	김동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태평양시대위원회 이사장	1928년, 평안남도 맹산
B	2010. 07. 19	강우석	영화감독, 강우석영화아카데미 대표	1960년, 경상북도 경주
C	2010. 04. 02	이순재	탤런트, 영화배우	1935년, 함경북도 회령

5) 전사 작업 결과 각 화자의 담화 상에 ‘이제’가 나타난 순서대로 번호를 정하였다. 예를 들어 ‘발화자 A’는 모두 14개의 ‘이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전체 담화 구조에서 ‘<A-1>이제’부터 ‘<A-14>이제’까지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발화자 B’는 모두 22개의 ‘이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B-1>이제’부터 ‘<B-22>이제’까지로 나타내었다. ‘발화자 C’는 모두 75개의 ‘이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C-1>이제’부터 ‘<C-75>이제’까지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전사 자료를 예문으로 쓸 때 ‘백’은 사회자 ‘백지연’, ‘A’는 ‘김동길’, ‘B’는 ‘강우석’, ‘C’는 ‘이순재’를 줄여 표기하였다. 가벼운 호응이나 짧은 대답 혹은 담화 맥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간단한 질문 등은 () 속에 나타내었다.

였다. 전사 작업을 하는 동안 모니터를 보지 않고 음성 자료에만 집중하여 전사하였고, 그 중에서 106개⁶⁾의 ‘이제’⁷⁾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출하여 프라트(Praat)⁸⁾ 프로그램으로 모두 분석하였다. 프라트 프로그램의 분석 결과 중에서 ‘이제’의 음의 높낮이(pitch), 발화길이(length), 음의 세기(intensity), 그리고 ‘이제’의 앞뒤에 나타나는 쉼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2.1. 담화의 개념 및 특성

언어의 특성을 이해하는 다양한 방법들 중의 한 가지는, 입말 언어와 글말 언어를 구분해서 그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입말 언어와 글말 언어는 대부분의 언어에서 관찰되는 보편적인 특성도 있고, 언어들 간의 차이로 인해 개별 언어에서만 발견되는 특수성도 동시에 갖고 있다. 송경숙(2003:226-255)에서 언급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글말 담화는 읽혀지기 전에 신중하게 교정 및 수정 과정을 거치므로 입말 담화보다 좀 더 형식적이고 완벽하게 구성되는 경향이 있다.

-
- 6) 전사 작업 결과 ‘이제’가 모두 111개 나타났지만 다른 음과 중첩되어 분석할 수 없는 자료가 5개 있었다.
 - 7) 본고에서는 111개의 ‘이제’가 모두 담화표지로 쓰인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였다. 담화표지 ‘이제’와 ‘시간부사’ 이제, 그리고 시간부사와 담화표지의 중간 형태인 ‘이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모두 아우르기 위해 기본형을 ‘이제’로 설정하였다.
 - 8) 프라트는 Amsterdam 대학의 Paul Boersma가 개발한 음성분석 프로그램으로서 다양한 컴퓨터 운영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유프로그램이지만 대형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음성 분석 패키지에서 볼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본고에서 사용한 프라트는 5.1.30 버전을 사용했으며 <http://www.fon.hum.uva.nl.praat>에 접속하면 최근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둘째, 맥락화 가정에 의하면 입말 담화는 전형적으로 즉흥적이고 대면적이기 때문에 맥락에 매우 의존적인 반면, 글말 담화는 일반적으로 맥락에 덜 의존적이고 설명적인 담화이다.

셋째, 응집성 가정에 의하면, 응집력을 달성하기 위해 입말 담화는 대체로 준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장치에 의존하는 반면, 글말 담화는 접속사와 같은 어휘적 장치에 의존한다.

넷째, 입말 담화는 말의 순간적인 발화 특성에 부분적으로 기인하는 단편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반면, 글말 담화는 글을 쓰기 전에 심사숙고하고 글을 쓰면서 수정하기 때문에 좀 더 통합적인 특성을 갖는다.

다섯째, 입말 담화는 형성 과정의 대부분을 보여주지만, 글말 담화는 손질되고 수정하여 완성된 결과만 보여준다.

여섯째, 입말 담화는 항상 사회적 맥락과 사회적 참여를 가정하기 때문에 참여성이 높은 반면, 글말 담화는 글쓴이가 독자와 공간적,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고도의 이탈과 분리성을 나타낸다. 참여성은 씬, 백채널, 세부적 묘사, 1인칭 대명사 사용, 대인관계 강조, 화자의 정신적 과정 묘사, 직접적 인용, 강조적 표현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반면, 통합성은 명사화, 결합된 구, 전치사구들의 나열, 보어절, 관계절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글말 담화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러나 입말 담화와 글말 담화는 이분법적, 변별적 자질로 양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담화가 양 끝점에 위치해 있는 연속선의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전형적인 두 가지 형식의 담화뿐만 아니라, 구어적 문어 담화와 문어적 구어 담화 등 다양한 중간 단계 유형의 말하기와 쓰기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친밀한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서신이나 일기 등은 전자에 해당하고, 공식식상에서의 발표나 연설은 후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어적 특성이 강한 문어 담화에는 입말 담

화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고, 문어적 특성이 강한 구어 담화에는 글말 담화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 사회의 언중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문자, 사이버 공간에서의 답글, 메신저,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나누는 채팅 등의 담화 형태 또한 입말 담화와 글말 담화로 양분하기 어려운 담화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로 주고받는 문자의 경우 글말 담화이기는 하지만, 결코 글말 언어의 특성을 가졌다고 볼 수 없는 담화이다. 그리고 미리 계획된 버라이어티 쇼에서 들을 수 있는 입말 담화도 온전한 형태의 입말 담화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와 같은 중간 형태의 담화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매체가 다양해질수록 더 많이 나타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최근 담화에 대한 구조적 분석에서는 문장을 담화 구성 단위로 간주하고 문장을 시스템문장과 텍스트문장으로 구별한다. 시스템문장은 문법에 의해 잘 구성된 일련의 묶음이고, 텍스트문장은 맥락 의존적 말화 신호 체계의 한 부분이다. 결국 담화는 시스템문장보다 텍스트문장으로 구성되고 텍스트 내에서 서로 특별한 관련성을 갖는 구성 단위이다.

반면 기능주의적 입장에서는 담화를 “언어 사용에 대한 특별한 강조”라고 정의한다. 언어 사용에 대한 분석은 인간 생활에서 언어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결코 분리될 수 없다. 담화를 언어 사용으로 정의하는 것은 담화가 특정 기능이 실현되는 시스템이며 사회적 문화적으로 구성된 말하기 방법이기 때문이다.

입말 담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담화분석 또한 언어학에서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었으나 담화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2.2. 담화표지의 개념 및 특성

담화표지는 담화상에서만 실현되는 표지로서 형태적으로 고정성이 높은 어휘적 표현이다. 그리고 문장 성분상 독립성이 높고, 독특한 담화적 기능을 하며, 실현이 임의적이고 화자의 발화 습관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담화표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또한 연구자들마다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데,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혜영(1994)은 담화표지가 통사적으로는 전혀 예측되지 않으며 잠재적으로 하나의 독립된 발화로서 화제를 제시하고, 선행발화에 대한 반응이나 태도를 보임으로써 담화의 연관성을 유지시켜 자연스러운 대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담화표지의 의미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고유 의미는 없으며 그 의미는 담화적 맥락에 의존되고 담화 기능에 따라 각각 다른 역할을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동일한 담화 표지가 담화 기능에 따라 각각 다른 운율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고찰하는 데에 있다.

이한규(1996)에 따르면 담화표지는 문장 또는 발화의 명제 의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말하는 이의 믿음, 전제, 태도 등을 보여주는 모든 언어적 형태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전영옥(2002)은 담화표지가 구어 담화에서 실현되며, 다른 담화 요소들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어휘 의미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는 언어 표현으로 보았다. 이 정의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담화표지가 기존의 어휘 의미에서 벗어났다는 것인데, 기존의 어휘 의미에서 벗어난 정도는 담화표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완전히 벗어난 담화표지는 없다는 것이 본 연구자의 판단이다.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담화표지에 대한 개념 정의는 아직도 논의 중에 있지만, 담화표지의 특성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 일치점을 보이고 있다. 그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담화표지는 주로 입말 담화에서 실현되고 입말 담화의 여러 형식이 담화표지로 사용될 수 있다.

둘째, 담화표지는 어조의 세기, 쉼 등과 관련된 운율적 특징을 가진다.

셋째, 담화표지는 그 자체에는 의미가 없거나 불분명한 의미를 가진다.

넷째, 담화표지는 통사적으로 다른 문장 성분과 독립성이 높다.

다섯째, 담화표지는 다양한 담화적 기능을 수행한다.

Schiffrin(1987:31)은 담화표지가 “말의 단위를 묶는, 순서적으로 의존하는 요소”라고 정의하였는데, 여기에서 ‘말의 단위’란 화행뿐만 아니라 문장과 그보다 작은 구 같은 단위도 포함한다. 이런 정의는 개략적으로 말해서, 담화표지가 발화문의 앞, 중간 또는 끝에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발화문의 각 위치에서 담화표지의 의미는 말의 내용과 결합하여 사회적, 표현적 의미를 제공하면서 담화에서의 연속적 관계를 해석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담화표지라는 개념이 담화 일관성에 대한 좀 더 폭넓은 분석, 즉 발화되는 것으로부터 의미를 만들어내기 위해 화자와 청자가 어떻게 형태와 의미, 그리고 행위를 공동으로 통합시켜나가는가에 대한 분석의 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Schiffrin(1987)은 담화표지에 대해 비교적 명쾌한 특징과 포괄적이고 상세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화문의 진리치에 영향을 끼치지 말아야 한다. 즉, 담화표지가 있는 없는 담화표지와 함께 하는 명제의 진리치에는 변화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담화표지는 발화문의 명제내용에 무엇인가를 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담화표지로 일컬어지는 표현은 의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과 같다.

셋째, 담화표지는 발화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발화가 행해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명제에 포함된 상황이 아니라 그 명제가 발화되고 있는 언어적, 비언어적 맥락 또는 정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넷째, 담화표지는 지시적 또는 인지적 의미보다는 감정적, 정서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다섯째, 각각의 담화표지가 동시에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Schffrin은 영어 감탄사 'oh'의 일차적 기능이 '정보상태의 변화'를 표현하는 것이지만 참여자들에서도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이면서 동일한 담화표지가 말의 여러 가지 다른 층위에서 사용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특정 발화문에서 담화표지가 차지하는 위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한 담화표지가 발화문의 앞 부분에서 사용될 때 수행하는 기능은 그 동일한 담화표지가 발화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용될 때 수행하는 기능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2.3. 담화표지의 유형

담화표지 유형에 대한 연구는 임규홍(1996), 김태엽(2000), 전영옥(2002), 최영자(2003), 안주호(2009) 등에서 이루어졌다.

임규홍(1996)에서는 좀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담화표지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1. 어휘적 담화표지

(1) 반복 정보 담화표지 : 앞 담화의 성분을 반복

(2) 어휘 담화표지 : 뭐냐하면, 말하자면, 뭐고하면, 말이야, 인자,
-어/아/여 가지고, 머시고, 말입니다, 아이가,
그 아인나, 거시가, -요, 마, 머, 참, 글썸

2. 비어휘적 담화표지

(1) 지시어 담화표지 : 이, 그, 저, 예, 예, 아, 음

(2) 감탄사 담화표지 : 오, 아뿔싸, 야, 아이고

(3) 초분절을 담화표지 : 쉼, 억양, 강세

김태엽(2000)은 원래 담화표지로 쓰이던 것이었는지를 분류의 잣대로 보아 본디 담화표지와 전성담화표지로 나누고, 담화표지의 운율적 특징으로 보이는 억양, 쉼, 강세 등을 담화표지의 하위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1. 본디 담화표지 : 감탄사, 부사어, 지시어, 운소(억양, 쉼, 강세)

2. 전성 담화표지 : 1) 내용어 → 담화표지
2) 기능어 → 담화표지

전영옥(2002)은 억양 단위 및 담화표지의 기능과 관련하여 담화표지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억양 단위와 관련해서는 억양 단위의 시작, 중간, 끝으로 구분하여 담화표지가 어느 위치에서 실현되는지에 따라 담화표지를 구분하였고, 담화표지 기능에 있어서는 화제 전개를 위한 것(화제와 화제 결속), 발화를 지속시키기 위한 것(화자와 화제 결속),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화자와 청자 결속)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실현 위치	담화표지의 유형
억양 단위의 시작	근까, 근데, 그리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담에, 글썸 뭐, 막, 이제, 아, 예, 이, 그, 자, 저, 아니, 응, 야, 음, 어, 예, 네
억양 단위의	뭐, 막, 이제, 이, 그, 저, 어, 예, 이런, 그런, 어떤, 무슨,

중간	이케, 저케, 저기, 뭐야, 그까, 가지고, 말이야, 있잖아
억양 단위의 끝	어, 예, 음, 왜, 막, 저, 뭐, 그 뭐지, 뭐야, 뭐냐하면 가지고, 있잖아, 말이야, -요

그리고 전영옥(2002)에서는 담화표지가 다양한 언어 형식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품사와는 다른 별개의 개념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는데, 담화표지를 화용적 기능을 획득하는 새로운 범주로 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1. 부사 : 그래, 그래도, 그래서, 그러나,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 그렇지만, 그리고, 그 답에, 아무튼, 여하튼, 왜, 이제, 이제, 인자, 인저, 좀, 막, 좌우간, 참, 하여간, 어디, 자만
2. 감탄사 : 자, 뭐, 뭘, 저, 아니, 글썄, 네, 예, 예, 에또, 어, 음, 응, 아, 아뿔사, 아이가, 아이고, 아이구, 어머, 오, 야, 애, 이 봐
3. 대명사 : 거시기, 저기, 이거, 그거, 저거
4. 용언 : 뭐지, 뭐야, 뭐냐면, 뭐랄까, 있잖아, 있잖아요, 있지, 있지요, 말סי야, 말이야, 말이에요, 말이지, 말입니다, 말하자면
5. 관형사 : 이, 그, 저, 이런, 저런, 그런, 어떤, 무슨
6. 조사 : -요, -그래, -만은
7. 구절 :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거, 그 뭐야, 거 뭐더라, 거 뭐시냐, 아니 근데, 응 근데, 그건 그렇고, -어/아/여 가지고, 그래 가지고, 글썄 말이야, 그거 있잖아요, 다른 게 아니구요

최영자(2003)에서는 김태엽(2000)의 분류에 따라 ‘본디담화표지’와 ‘바뀐담화표지’로 나누고, ‘바뀐담화표지’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1. 본디담화표지 : 감탄사, 일부 부사어, 일부 지시어, 운소
 - (1) 감탄사 : 어, 자, 저, 아뿔싸, 아이고, 어머니, 이크 등
 - (2) 일부 부사어 : 그래서, 그러나,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럼 등

(3) 일부 지시어 : 이, 그, 저, 이리, 그리, 저리 등

(4) 운소 : 억양, 강세, 쉼

2. 바뀐담화표지

(1) 단어

① 명사 : 사장님, 선배님, 선생님, 아버지, 어머니 등

② 대명사 : 거시기, 뭐, 어디, 왜, 저기

③ 관형사 : 무슨, 웬

④ 부사 : 가만, 그냥, 아니, 이제/인제(이자/인자/인저), 참

⑤ 조사 : -요

(2) 구

① 명사구 : 뭘, 어디요

② 동사구 : 말이야, 뭐야, -지 뭐야, 있잖아

위의 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자에 따라 담화표지의 범위와 분류 기준이 조금씩 차이를 알 수 있다. 임규홍(1995)은 초분절음 요소(쉼, 억양, 강세)를 비어휘적 담화표지로 다루고 있는데, 김태엽(2000)에서는 본디담화표지로 분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2.4. 담화표지 ‘이제’의 화용적 기능

이기갑(1995)에서는 ‘이제’가 선행 발화를 매듭짓고, 후행 발화의 의미적 연결을 도우면서, 후행 발화에 초점을 맞추는 효과를 갖는다고 담화적 기능을 설명하였다. 이와 크게 다르지 않게 임규홍(1996)에서도 ‘인자’가 구정보 뒤에서 신정보를 이끄는 속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담화 속에서 ‘붙듦, 바뀔, 주의 집중, 시간 벌기’ 등의 복합적인 담화 기능을 가진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결국 이들 연구에서는 ‘인자’의 중심 기능을 구정보인 선행 발화와 신정보인 후행 발화 사이의 의미적 연결 내지는 접속의 기능어로 본 것이다.

임규홍(1996)은 ‘대조’의 시간부사 ‘이제’가 담화표지 ‘인자’로 전이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문맥 정보의 형성과 정보 유도 기능에 대해 소략하게 다루었다. 김광희(2004:182-198)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텍스트 형성의 기제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응집성의 실현 문제를 주제가 갖는 정보의 흐름과 텍스트 통합 수단의 분석 등을 통해 검토하였다. 구술담화가 독화적 텍스트의 성격을 갖는다 할지라도 구두어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정제되지 않은 구두어적 요소를 그대로 담고 있다고 밝혔다.

구술담화의 특징은 화자 개인의 특성이나 개인적 발화 습관이 그대로 투영된 결과로 보고, 화자는 발화 구성의 긴밀성이 약화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텍스트의 응집성 확보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인자’가 의미적으로 선행 발화와 다른 정보의 문장을 유도하고, 기능면에서 있어서 다른 연구자들이 밝힌 [발화의 유도]가 아닌 [정보의 도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인자’가 실현되지 않은 문장은 시간의 선후에 따라 평범하게 진술된 내용이며, 정보전달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데 비해, ‘인자’가 실현된 문장은 발화 중에 초점을 표시하게 되는 효과를 얻는다.⁹⁾

담화 표지 ‘인자’가 본래 갖고 있던 시간 개념은 소실되고 대신 새로운 정보를 도입하기 위한 응집 기능의 표지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정보를 유도한다는 것은 새로 도입되는 정보를 선행한 구정보에 대해 신정보로 취급한다는 의미인데 이 때 시간 개념이 소실되었다고 보는 견해

9) 김광희(2004)는 ‘인자’가 실현된 문장과 실현되지 않은 문장을 비교하면서 ‘인자’를 사용하면 정보전달의 의지가 드러나고 초점을 획득하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가. 그때 인자 신랑은 서울로 가서 그때 마침 과거가 있응께 과거를 본 것이 인자 급제에 당선이 댜단 말여.

나. 그때 ∅ 신랑은 서울로 가서 그때 마침 과거가 있응께 과거를 본 것이 ∅ 급제에 당선이 댜단 말여.

에 동의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논의는 III장에서 펼칠 것이다.

그러나 김광희(2004:203-204)는 구술담화가 정제되지 않은 입말 형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발화 습관이나 발화 중의 시간 끌기와 같은 화용적 습관에 연유한 결과일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인자’가 모두 문장의 특정 성분을 유도한다고 보는 것은 모국어 화자의 언어 직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담화표지는 화행이나 문장, 또는 그보다 작은 언어적 단위를 묶어주면서 담화의 선후 의존성을 표현하고 담화의 의미적 결속을 위한 선택적 장치이다. 담화표지는 입말 담화에서 활발하게 실현되는데, 실질적 의미를 지닌 어휘가 구어 담화에서 쓰일 경우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나 담화적 기능을 하거나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화용적 상황의 의미로 사용된다.

(2) (가) 철수는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까?

(나-1) 네.

(나-2) 네,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3) 네,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4) 네,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위의 예문(2)에서와 같이 철수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경우에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다. (나-1), (나-2), (나-3) 등은 모두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대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나-4)와 같은 대답을 듣는다면, 철수가 지금까지 공부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나-3)의 대답과 비교하면 ‘네,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라는 대답은 단지 발화 당시의 시각에 철수가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만 전달할 뿐 그 전의 상황까지는 제시하지 못하는 문장이다. 하지만 (나-4)와 같이 ‘네,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라는 대답은 화자의 질문에

대해 긍정의 대답을 할 뿐만 아니라 발화 시각 전의 상황까지도 함께 전달해주는 문장이다.

사전상의 설명¹⁰⁾을 보면 ‘지금’을 설명하는 데에 ‘이제’를 제시하고, ‘이제’를 설명하는 데에 ‘지금’을 제시하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 만약, 친구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다 잠을 청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예문(3)이 있다면 대부분의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3-가)와 같이 말을 할 것이다. (3-가)의 ‘이제 자자’라는 발화 속에는 지금까지 이야기 하던 상황을 정리하고 잠을 청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전

10) 사전에서 살펴본 ‘이제’와 ‘지금’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연세 한국어 사전, 2009)

이제¹ ㉠ ① (말하고 있는 바로) 이때. 지금의 시간

예 목욕을 하고 나자, 이제까지 쌓였던 피로가 말끔히 가시는 것 같았다.
/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명심해서 들어야 한다.

② 오늘날. 지금의 시기.

예 이제는 장사도 웬만큼 하게 되어서, 우리 부부가 먹고살 만하다.

이제² ㉠ ①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때

예 이제 스물셋에 접어든 며느리는 반듯한 몸가짐을 지닌 참한 색시였다.

② 지금부터 앞으로

예 집도 절도 없는 몸이 이제 어디로 가야한단 말인가.

③ 지금에 이르러.

예 나와 동생은 이제 누님의 뒷바라지 없이도 살아갈 만큼 성장했다.

지금¹ ㉠ ① (말하고 있는 바로) 이때.

예 도대체 지금이 몇 시야? / 그 일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일이다.

② 오늘날. 현재.

예 오십줄에 접어든 지금까지 나는 외할머니처럼 청정한 눈빛을 가진 여성을 본 적이 없다.

지금² ㉠ ① 바로 이제. 이 시간에.

예 나는 일어나서 지금 막 해 놓은 밥을 몇 술 떴다. / 오늘 밤 당장 나가, 지금 당장!

② 오늘날에 이르러.

예 우리의 주거 생활은 지금 여러 모로 달라졌다. / 지금 세계는 공업화 시대를 지나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제를 추론할 수 있다.

(3) (가) 이제 자자.

(나) 지금 자자.

하지만 사전에 제시된 설명으로는 이 두 가지 발화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제’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순한 부사가 아니라 화자의 심리나 담화 맥락상 추론할 수 있는 발화의 전후 상황까지도 나타내는 어휘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부사 ‘이제’가 한국인의 입말 담화에서 아주 빈번히 나타나고 있으며 시간부사가 아닌 경우에도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규홍(1996:6)은 담화표지가 전체 담화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이상이라는 데 주목하였고 그 가운데에서도 담화표지 ‘인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7% 정도라고 제시하였다. 특히 이기갑(1995:264-269)에서는 담화표지 ‘인자’가 시간부사 ‘이제, 인제, 인자’ 등에서 바뀌어 왔다는 것을 제시하고 시간부사와 담화표지를 구분하는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 담화표지 ‘이제’에는 조사가 붙지 않지만 시간부사 ‘이제’에는 조사가 붙을 수 있다.

(4) (가) 목욕을 하고 나자, 이제까지 쌓였던 피로가 말끔히 가시는 것 같다.

(나)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명심해서 들어야 한다.

(다) 이제는 장사도 웬만큼 하게 되어서, 우리 부부가 먹고살 만하다.

(5) (가) 이제부터라도 잘 해야지.

(나) 그래서 이제 / *이제는 / *이제도 거기를 침을 맞았지.

(5-가)와 같이 보조사가 붙으면 시간부사이고, (5-나)와 같이 보조사가 붙어서 어색한 문장이면 담화표지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제’를 담

화표지로 논의하고 있는 대부분의 예문들이 과거 시제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를 침을 맞았지’와 같은 문장에서 ‘이제’가 담화표지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 거기를 침을 맞았지’와 같은 문장에서 ‘이제’를 사용함으로써 화자는 청자를 발화 시각이 아닌 사건이 일어난 상황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마치 그 사건이 있었던 시간에 청자와 화자가 같이 있었던 것처럼 느끼게 하는 장치로 ‘이제’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관한 논의는 III장에서 계속할 것이다.

둘째, 담화표지 ‘이제’는 시간부사 ‘이제’와 함께 쓰일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자료에서도 아래 예문에서와 같이 ‘이제’가 여러 번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다. 이기갑(1995:267)에서는 여러 개의 ‘이제’가 나타나는 경우에 적어도 하나는 담화표지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예문(6)에서 ‘이제’가 세 번 나타나고 있는데, 어느 것이 담화표지라고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논의도 본고에서는 음성 분석 결과를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6) 아, 두번째 이게 천만이 넘어가니까 (네에) 아, 인젠 내가 은제, 이제, 뭘 해야 되나, 예를 들면, (네) 그래서 좀, 흥행이라는 그, 단어가 (네) 좀 싫어지더라구요.

셋째, 담화표지 ‘이제’는 문장 성분상 독립성이 높고 문장의 어느 위치에나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다. 담화표지 ‘이제’는 아래의 예문(7)¹¹⁾에서와 같이 서술어나 시제나 서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이제’를 사용하지 않은 글말 담화로 고치면 아래 예문(7')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11) 2008년도 전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 (p.135, p.136)

(7) (가) 나:중과내 허다허다 묻:형께 인자 후:퇴허라고 인자 그런 인자 머
 마:리 디키대요 (나중에 하다하다 못하니까 이제 후퇴하라고 이제
 그런 이제 뭐 말이 들리대요)

(나) 그래서는 기회를 바:가꼬 인자 그 쪼차가서는 인자 그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해썩요. (그래서는 기회를 봐 갖고 이제 그 쫓아가서는 이
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7') (가) 나중에 하다하다 못하니까 Ø 후퇴하라고 Ø 그런 Ø (뭐) 말이 들
 리더라구요.

(나) 그래서는 기회를 봐 갖고 Ø (그) 쫓아가서는 Ø 그 사람에게 이야
 기를 했어요.

위의 예문 (7')와 같은 글말 담화에서는 '이제'가 나타나지 않는데, 아
 마 이러한 글말 담화를 입말 담화를 바꾼다면 '이제' 대신 '쉽'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논의도 III장에서 펼치고자 한다.

넷째, 담화표지는 실현이 임의적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더라도 문장의
 명제적 의미에는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 즉 담화 표지 '이제'가 시간부
 사의 어휘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명제적 의미
 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입말의 특징인 담
 화표지를 글말로 다루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담화표지가 포함된
 문장과 포함되지 않은 문장은 문장의 전체 억양이나 쉽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 발화된 음성자료에서 담화표지만 생략하고
 들으면 어색한 문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다섯째, 담화표지 '이제'가 문장 앞에 나타나는 경우, 앞말과 쉽이 있고
 뒷말에 이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그 밖의 경우는 대체로 앞말과 이어지
 며 뒷말과의 사이에 쉽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했는데, 이 또한 음성
 분석 결과를 놓고 논의하고자 한다. 반면 시간부사는 대체로 앞말과 쉽

이 있고 뒷말에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이기갑(1995:268)에서 설명하고 있다.

아래 예문(8)을 살펴보면 ‘이제’를 시간부사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이 올바른 것인지 알아보자. 아래 예문(8)에서 ‘이제’가 시간부사라면 기존의 연구에서 논의된 바와 같은 쉽이 나타나는 것일까? 본고에서는 음성분석 결과를 통해 기존의 연구에서 논의된 쉽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쉽뿐만 아니라 음의 길이, 세기, 높낮이 등의 운율적 특징도 함께 논의할 것이다.

(8) (가) 철수는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까?

(나-1) 네,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2) 네,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3) 네.

위의 예문(8)과 같은 경우 ‘철수는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까?’에 대한 대답은 (나-3)와 같은 짧은 긍정의 대답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 담화 상황에서는 (나-1)과 같이 대답할 수도 있고, (나-2)와 같이 대답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나-1)와 같이 대답하는 경우에 ‘이제’를 어떻게 발화하느냐에 따라 화자의 명제 전달 태도를 추측할 수 있다. ‘이제’를 강하게 혹은 길게 발음한다면 ‘여태 공부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에 대해 화자가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화자의 발화 심리까지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Ⅲ. 담화표지 ‘이제’의 운율적 특징과 화용적 기능

이호준·박종철(2007:254-258)에서 음성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가장 쉽고 직관적인 장치로 활용된다고 전제하고, 담화표지

‘그, 음, 막’의 음성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담화표지는 앞뒤에 별도의 쉼이 나타나지 않고 평균적인 발화 길이보다 짧게 발화되는 특징이 있고, 담화표지가 길게 발화되는 경우에는 발화 길이와 비슷한 정도의 길이로 쉼이 뒤따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음의 높낮이는 발화문의 운율 정보 중에서 화자의 심리나 감정 상태 등의 정보를 표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는데 담화표지는 음의 높낮이 변화에 따른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는데 본고에서의 논의 결과는 이와 다르게 나타났다. 그리고 담화표지의 음의 세기는 문장의 평균적인 음의 세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는데 담화표지를 ‘그, 뭐, 막’ 등의 단음절로 제한하였기 때문이거나 전체 발화 문장이 복잡한 데 비해 담화표지의 평균 세기가 크게 분석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중의적 해석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담화표지는 감탄사와는 다르게 정적인 형태의 운율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설명하였고, 담화표지의 발화길이와 뒤따르는 쉼의 길이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즉 담화표지의 발화속도가 빠르면 담화표지의 앞뒤에 쉼이 나타나지 않고, 담화표지의 발화 속도가 느리면 담화표지 다음에 동일한 길이의 추가적인 휴지가 있다고 설명하지만 이 또한 본고의 논의 결과와 다름을 알 수 있다. 단음절 담화표지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음성 분석¹²⁾ 자료가 22개에 그치기 때문에 담화표지 전체의 운율적 특징으로 보기에겐 무리가 있다.

12) 음성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연구는 이호준·박종철(2007) 외에 양병곤(2000)의 “Praat를 이용한 숫자음의 음향적 분석법”, 이도경(2005)의 “영어 강세의 이론과 지도 방안”, 양병곤·서준영(2007)의 “말하기 숙달도에 따른 대학생 집단별 억양곡선 관찰”, 이옥주(2009)의 “담화적 맥락에서의 말하기” 등 외국어 학습법과 관련한 논문이 많았다. 하지만 이들 논문에서 다루어진 음성 자료 또한 자연 발화가 아닌 녹음실에서 단발적으로 녹음된 자료가 대부분이라는 점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담화표지는 화자의 심리를 나타내는 표지이므로 담화맥락에 따른 화용적 기능에 따라 쉼의 길이, 음의 높낮이, 세기, 쉼의 길이 등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본고에서는 입말 담화 상에 나타나는 ‘이제’ 106개를 추출하여 발화 시의 음의 높낮이, 음의 길이, 음의 세기 등을 분석하였고, 발화 앞뒤에 나타나는 쉼의 길이도 함께 측정하였다. 음성 분석 프로그램은 프라트(Praat)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예를 들어 아래 예문(9)에 나타나는 <11>, <12>, <13>, <14>에 나타나는 ‘이제’의 발화 부분을 추출하여 분석하면 컴퓨터 화면 상에 나타나는 Praat 분석 창은 아래 그림(1~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9) 근데 <C-11>이제 그거를 <C-12>인제 그런 장면을 허게 되면 <C-13>이제 연상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남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과거 <C-14>인제, 우리 (후략)

아래에 제시된 프라트 분석 창에서 분홍색으로 나타난 부분이 ‘이제’가 발화되고 있는 부분이며 파란색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나는 것이 음의 높낮이(pitch)로서 단위는 Hz이다. 대부분 남성 화자의 경우 50Hz에서 200Hz 사이의 값을 나타낸다. 그리고 노란색 곡선 그래프로 나타나는 것이 음의 세기(intensity)로서 단위는 dB이다. 대부분 남성 화자의 경우 20dB에서 70dB 사이의 값을 나타낸다. 음의 높낮이와 음의 세기가 그래프로 나타나는데 본고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그래프를 일일이 제시할 수 없으므로 변화가 나타나는 정점의 값을 구하였다.¹³⁾ 그리고 분홍색 구간

13) 예를 들어 발화자 C가 11번째 ‘이제’를 발음할 때, 위의 Praat 분석 창에서 음의 높낮이 그래프를 살펴보면 167.5Hz에서 시작하고 서서히 낮아져서 91.8Hz에서 다음 발화로 쉼 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의 높낮이는 55.58dB에서 시작하여 49.02dB로 낮아졌다가 53.73db로 다시 높아지고 45.34dB에서 다음 발화로 연결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측정한 값을 예문과 함께 표로 제시하고자 한다.

은 ‘이제’가 발화되고 있는 부분인데 음의 길이(length)를 나타내는 단위는 msec이다. 아래 그래프에서 0.169007sec로 나타나는데 본고에서 자료로 다룰 때에는 169.007msec으로 바꾸어 다루었다.



그림 1 - 발화자 C의 <C-11>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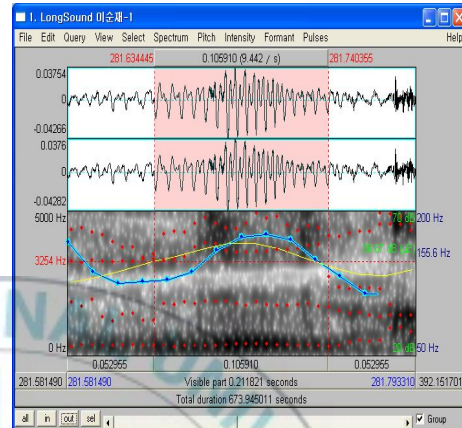


그림 2 - 발화자 C의 <C-12>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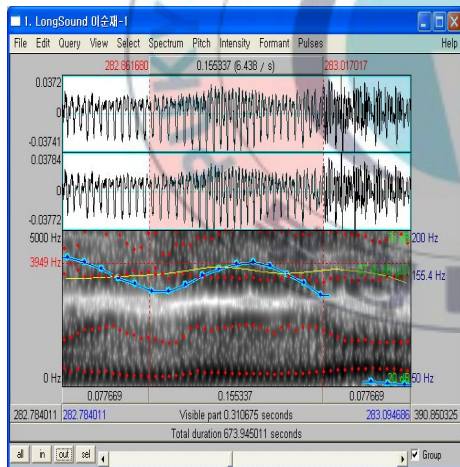


그림 3 - 발화자 C의 <C-13>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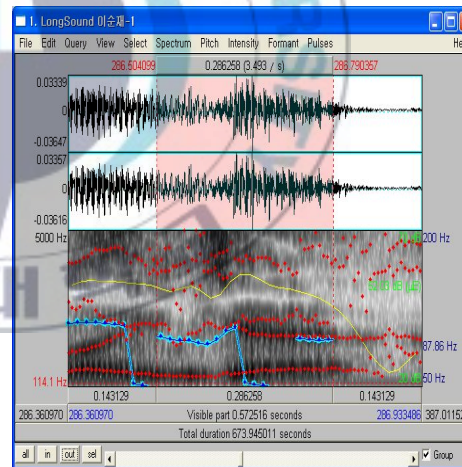


그림 4 - 발화자 C의 <C-14>인제

그리고 그림 4의 <C-14>‘인제’ 다음에는 후행 발화와의 사이에 쉼이 나타나는데 이와 같이 발화의 뒤뿐만 아니라 앞에 쉼이 나타나는 경우도 모두 추출하여 자료로 다루었다. 위의 4개의 분석 그래프를 보면

<C-12>와 <C-13>의 그래프가 비슷한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화용적 기능 또한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음성 분석 결과가 비슷하면 화용적 기능 또한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예문(9)에 나타난 ‘이제’를 음성 분석하여 그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아래 표에서 C는 ‘발화자 C’를 나타내고, <C-11>, <C-12>, <C-13>, <C-14>의 ‘이제’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분석하여 음의 높낮이, 발화 길이, 앞뒤에 나타나는 쉼의 길이, 음의 세기 등을 측정 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앞으로의 논의에 있어 프라트 분석 그래프는 일일이 제시하지 않고 아래 표와 같은 분석 결과를 놓고 고찰하고자 한다.

C	높낮이 (Hz)				길이 (msec)			세기 (dB)			
					선행 쉼	‘이제’	후행 쉼				
11	167.5	91.8			-	169.007	-	55.58	49.02	53.73	45.34
12	127.5	175.1	138.6		-	105.910	-	53.62	59.05	52.91	
13	141.7	169.6	137.9		-	155.337	-	56.08	58.29	56.24	
14	96.2	91.2	106.2	94.8	-	286.258	297.272	51.44	48.57	55.97	46.68

표 1 - 예문(9)에 나타나는 ‘이제’의 음성분석 결과

3.1. ‘쉼’ 대응 표지

‘쉼’은 주제말과 설명말을 유표적으로 구분짓고 설명말을 강조하는 초점이 된다. 주제말과 선어말 사이에 ‘쉼’¹⁴⁾이 놓인다는 주장은 이정민(1973), 채완(1976), 채규수(1990), 임규홍(1993)에서 보이고 있다. 이기갑

14) 한 문장에서 끊는 자리와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문장과의 사이를 두는 끊어읽기의 시간적 틈새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는 기계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발화행위의 적절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는 적당히 끊어서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방송에서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휴지는 의미전달의 효율성, 흐름의 자연스러움, 운율 등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휴지를 잘못 사용하면 문장 내용이 엉뚱하게 변질될 수 있다. (성선녀, 2009:129)

(1995)에서는 담화표지 ‘이제’가 문장 앞에 나타나는 경우 앞말과는 쉽이 있고 뒷말에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그 밖의 다른 경우는 대체로 앞말과 이어지며 뒷말과는 쉽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반면 시간 부사는 대체로 앞말과의 사이에 쉽이 있고 뒷말에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제’의 앞뒤에 나타나는 ‘쉽’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①과 같은 경우는 ‘이제’의 앞과 뒤에 전혀 쉽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로서 선행발화와 후행발화가 ‘이제’를 사이에 두고 바로 연결되는 경우이다. ②와 같은 경우는 ‘이제’의 앞과 뒤에 모두 쉽이 나타나는 경우이고, ③과 같은 경우는 ‘이제’의 앞에는 쉽이 나타나지 않고 ‘이제’ 뒤에 쉽이 나타난 후, 후행발화와 연결되는 경우이다. ④와 같은 경우는 ‘이제’의 앞에 쉽이 나타나고 ‘이제’의 뒤에는 쉽 없이 바로 후행발화와 연결되는 경우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대부분 ③이나 ④와 같은 경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선행발화	‘이제’	후행발화
------	------	------

①

선행발화	쉽	‘이제’	쉽	후행발화
------	---	------	---	------

②

선행발화	‘이제’	쉽	후행발화
------	------	---	------

③ 담화표지 ‘이제’가 나타나는 대부분의 경우

선행발화	쉽	‘이제’	후행발화
------	---	------	------

④ 담화표지 ‘이제’가 문장 앞에 나타나거나 시간부사로서 쓰인 경우

그림 5 - ‘이제’의 앞뒤에 나타나는 ‘쉽’의 유형

그러나 본고에서 자료로 다룬 발화자 세 명의 경우, ‘이제’의 앞뒤에 나타나는 쉽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¹⁵⁾

	발화자 A		발화자 B		발화자 C	
	선행 쉽	후행 쉽	선행 쉽	후행 쉽	선행 쉽	후행 쉽
긴 쉽	5 (36%)	9 (64%)	1 (5%)	5 (25%)	0 (0%)	27 (38%)
짧은 쉽	0 (0%)	2 (14%)	0 (0%)	1 (5%)	0 (0%)	14 (19%)
쉽 없음	9 (64%)	3 (21%)	19 (95%)	14 (70%)	72 (100%)	31 (43%)
전체 횟수	14		20		72	

표 2 - 발화자에 따른 ‘쉽’의 횟수 (짧은 쉽 : 100msec 이하의 쉽)

발화자 A의 경우에는 ‘이제’의 앞뒤에 쉽이 자주 나타나는 데 비해, 발화자 B의 경우에는 1회를 제외하고는 ‘이제’ 앞에 쉽이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발화자 C의 경우에도 ‘이제’ 앞에 ‘쉽’이 나타나는 경우가 전혀 없고, ‘이제’ 뒤에도 ‘쉽’이 나타나지 않는 횟수가 무려 31회(43%)나 되었다. 즉 위 그림의 ①과 같은 경우가 43% 나타난 것이다. 발화자 B의 경우에는 총 20회의 ‘이제’ 뒤에 쉽이 나타나는 횟수가 6회이며, 발화자 C의 경우에도 총 72회의 ‘이제’ 뒤에 쉽이 나타나는 횟수가 41회이며, 아주 짧은 쉽으로 나타난 횟수는 14회였다. ‘이제’의 앞뒤에 쉽이 나타나는 유형을 발화자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	발화자 A	발화자 B	발화자 C
①	1 (7.14%)	13 (65.00%)	31 (43.06%)
②	3 (21.43%)	0 (0.00%)	0 (0.00%)
③	8 (57.15%)	6 (30.00%)	41 (56.94%)
④	2 (14.29%)	1 (5.00%)	0 (0.00%)

표 3 - 발화자에 따른 쉽의 유형과 횟수

15) ‘발화자 B’와 ‘발화자 C’의 분석 자료 중에서 분석 불가능한 자료는 제외하였음.

발화자 A는 ‘이제’의 뒤에 쉽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발화자 B는 ‘이제’의 앞뒤에 모두 쉽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발화자 C도 ‘이제’의 앞뒤에 쉽이 나타나지 않거나 ‘이제’의 뒤에 쉽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화자는 ‘이제’를 발화할 때, 그 순간이 ‘쉽’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담화표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연설을 하거나 강의를 하는 사람들의 발화를 살펴보면 쉽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보통의 화자들은 쉽 대신 ‘이제’와 같은 담화표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연설이나 강의 상황에서는 발언권이 보장되지만 대화식 담화에서는 자신의 발언권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¹⁶⁾로서의 기능도 작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래 예문(10)에서 시트콤의 특정 장면에 대해 사회자가 질문을 하자 발화자 C가 거침없이 발화를 이어가는데 중간에 ‘쉽’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를 중간에 끼워 넣음으로써 ‘쉽’의 기능을 대신하고 발화를 지속하겠다는 화자의 심리까지 전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이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쉽 없이 발화가 지속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발화상황에서는 화자도 힘들어지고 청자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10) 백:호호호, 네, 너무, 그게 제일 힘들셨어요? 아까 저는요, (중략) 그 표정을 완전히 클로즈업하지않아요,
C:근데 <C-11>이제 그거를 <C-12>인제 그런 장면을 하게 되면 <C-13>이제 연상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남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후략)

16) 채영희(1998:174)에서 “문자언어에 의한 텍스트는 비상호적인 독백이지만 음성언어에 의한 담화는 상호 작용적 담화이기 때문에 말할이가 자신이 말하는 내용에 들을이의 주의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그러한 장치 중의 하나가 담화표지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예문(10)에 나타난 <C-11>, <C-12>, <C-13>의 ‘이제’는 글말로 쓰는 경우라면 당연히 나타나지 않는 표지들이다. 하지만 실제 입말 담화 상에서 화자는 상대방의 말에 대한 답변을 쉽 없이 늘어놓는 과정에서 ‘이제’를 사용함으로써 쉽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우 ‘이제’의 앞뒤에 쉽이 나타나지 않고 발화 길이도 매우 짧은다는 것을 아래 표의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다.

C	높낮이 (Hz)			길이 (msec)			세기 (dB)			
				선행 쉽	‘이제’	후행 쉽				
11	167.5	91.8		-	169.007	-	55.58	49.02	53.73	45.34
12	127.5	175.1	138.6	-	105.910	-	53.62	59.05	52.91	
13	141.7	169.6	137.9	-	155.337	-	56.08	58.29	56.24	

또 다른 예문 (11)을 살펴보자.

(11) 전혀 근거 없죠, 내가, 저, 김종필인 아직 살아있으니깐, 내가 그랬어요, 내, 정계 은퇴할 마음을 가지고, 김종필 총재, 내가 <A-13>이제, 출마한다 그러면은, 나한테 전국구 줘도, 일번을 줄거 아니요, 그러지 말라고, 나는 <A-14>이제 이걸로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전국구 일번 줄 수 있다 그랬어요, 김종필 씨가, 근데 내가, 정, 정계 은퇴하겠습니다, 그러구 선대위위원장 일을 다 봐주구, (네) 오월머, 말인가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 십사대 임기가 끝나는 날루, 정치에서는 전부 손을 씻구, 발을 씻구, 관계해본 적이 없습니다.

위의 예문(11)에서 발화자 A의 <A-13>과 <A-14>에 나타난 ‘이제’는 직접 인용¹⁷⁾을 하면서 그 당시에 자신이 발화했던 내용을 고스란히 전

17) Wallace Chafe(김병원 · 성기철 공역, 2006:pp.208-301)에서 ‘지칭 화법’과 ‘간접 화법’은 전에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거나 일어날 일에 대해 상상할 때 기억력의 원천적 제약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그와 달리 ‘직접 화법’은 감탄사, 반복, 구어체 어휘, 운율 등으로 정의적인 면을 전달하여 참여를 이끌어내는 한 방법이라고 보았다. 본고에서 분석 자료로 삼은 발화자 A 또한 직접 화법을 자주 사용하면서 담화를 전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달하고 있는데, 모두 시간 부사로서 쓰인 ‘이제’임을 알 수 있다.

A	높낮이 (Hz)					길이 (msec)			세기 (dB)			
						선행 쉼	‘이제’	후행 쉼				
13	168.9	114.1	161.1	140.1	151.4	-	352.000	1668.062	59.82	43.35	61.16	46.26
14	123.0	100.5	126.0			-	257.822	-	54.38	41.86	54.52	53.02

발화 길이와 쉼의 길이를 비교해 보면 <A-13>의 ‘이제’는 발화 길이에 비해 뒤에 나타나는 쉼이 매우 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A-14>의 ‘이제’는 발화 길이도 짧고 앞뒤에 쉼이 나타나지 않지만 시간부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발화자 A의 경우에는 ‘이제’가 발화되는 길이에 비해 선행 쉼과 후행 쉼의 길이가 대체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고 ‘이제’가 담화표지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시간부사로서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IV장에서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앞선 예문을 다시 들어 살펴보자.

- (12) (가) 철수는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까?
(나) 네,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철수가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경우 (나)의 예문에 쓰인 ‘이제’가 시간부사라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시간부사는 담화표지에 비해 발화길이가 길고, 앞이나 뒤에 쉼이 실현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이제’가 발화되는 음의 길이나 높이, 세기, 쉼 등을 고려하여 화자의 주관적 발화 태도를 추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간부사라 할지라도 ‘이제’를 강하고 길게 발음한다면 발화 시각 전의 상황이 공부하지 않는 상황이었음을 강조하거나 그에 대한 불만의 심경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고, ‘이제’를 약하고 짧게 발음한다면 공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강조하는 표현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예를 아래 예문(13)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배우들의 영화 출연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출연료의 상한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는 더 이상 무리하게 출연료를 요구하는 영화 배우가 없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있다.

(13) 백: 근데, 현재에서는, 그 선을 넘는군요?
 B: 저는, 지금 그 선 비슷하게 돼 있는 거 같은데요.
 백: 비슷하게 돼 있어요?
 B: 네, 배우들도 오히려 손님이 많이 들면 좀 더 주십시오, 그러지, (네) 이거 안 주면 안해, 이런 배우들은 <B-19>인제, 거의 없는 걸로. (네네)

B	높낮이 (Hz)			길이 (msec)			세기 (dB)			
				선행 쉼	'이제'	후행 쉼				
19	100.6	118.8	96.3	-	121.472	50.908	56.06	61.97	50.58	

여기에서 <B-19>의 '인제'도 시간부사로 사용되었는데, 다른 담화표지 '이제'에 비해 발화 길이도 아주 짧고 뒤에 이어지는 '쉼'도 아주 짧게 나타났다. '쉼'의 기능은 선행 발화와 후행 발화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이기도 하며, 억양 단위를 나타내기도 한다. 글말의 문장 단위와 입말의 문장 단위는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이제'를 사용함으로써 쉼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으로 보인다. 쉼의 대응 표지로서 '이제'가 사용된다는 것은 후행 발화를 준비하기 위한 화자의 심리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선행 발화를 매듭 짓는 효과도 있다.

3.2. 시제 전환 표지

입말 담화와 글말 담화의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시제의 애매모호함이다.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담화표지가 기존 어휘 의미를 상실하거나 벗어나서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고 전제하였다. 담화표지 '이제' 또한 시

간 개념이 소실되고 새로운 정보를 유도하는 장치임을 밝힌 연구가 있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도입 정보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서 정보 공유가 이루어져 구정보로 전환되었다는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여기에 응집되는 새로운 정보를 유도하는 기능으로 ‘이제’가 사용된다는 것인데 본 연구자의 생각은 이와 다르다.

(14) 실수가 그대로 방송에 나가는 거죠 현대로 나가는 거니까 (엔지도 다 본다) 아, 물론이죠, (이렇게 되는거죠) 그럼요, (그렇게 되는 거죠) 축구중계하듯 허는 거니까 거기 무슨 저, 헛발질 했다고 빼고 가는 거 아니잖아 (네) 똑같은 말예요 (네) 카메라 공포증에 걸린 사람들은 저기저, 탈리가 들어온단 말야 (그쵸 빨간 불이 들어오죠) 저거 뻥 들어오면 대사 왔던 것도 다 잊어버리는 사람 있어, (시작하면서) 어, 그래가지고 <C-50>인제 실수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수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내려갈 수 밖에 없는 거야, 그때 <C-51>이제, 케이비에스가 남산에 있었으니까, 올라왔다가 실수 몇 번 하면 야, 영원히 방송국 떠나는 거야,

위의 예문(14)를 살펴보면 1960~1970년대에는 드라마도 생방송으로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발화자 C가 설명하면서 과거 시제가 아닌 현재 시제¹⁸⁾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실제 담화 상황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는데, 현재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청자에게 당시의 상황을 현장감 있게 설명할 수 있으며 마치 화자와 청자가 사건의 현장에 함께 있는 듯한 착각을 유도해 친밀감을 높이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다. 아래 예문(14')의 (가)와 (나)를 비교하면 그 차이

18) 위의 책(pp.289-292):Wallace Chafe는 발화 내용이 발화 상황과 동떨어진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실시간 경험인 듯이 표현하는 방법으로 ‘역사적 현재 시제’와 ‘직접 화법’을 언급하였다. 과거 시제로 표현해야 하는 담화 구조에서 현재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마치 발화순간에 과거의 상황을 감지하고, 움직이고, 평가받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효과를 갖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런 역사적 현재 시제는 직접 화법의 속성이며 서사의 클라이맥스나 클라이맥스 직전에 사용하면 적절하다고 설명하였다.

를 확실히 알 수 있는데, 특히 <C-51>의 ‘이제’는 ‘그때’라는 시간부사와 함께 쓰이고 있어 생략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만 화자는 ‘이제’를 사용함으로써 현장감 있게 표현하려는 화자의 심리를 알 수 있다.

(14') (가) 어, 그래가지고 <C-50>인제 실수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수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내려갈 수 밖에 없는 거야, 그때 <C-51>이제, 케이비에스가 남산
에 있었으니까, 올라왔다가 실수 몇 번 하면 야, 영원히 방송국 떠나는 거야.
(나) 어, 그래가지고 <C-50>그때 실수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실수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내려갈 수 밖에 없었던 거야, 그때 (<51>∅) 케이비에스가 남산에
있었으니까, 올라왔다가 실수 몇 번 하면 야, 영원히 방송국 떠나는 거였어.

따라서 이와 같이 시제전환표지로서 ‘이제’를 사용할 때에는 ‘이제’가 시간부사와 담화표지의 중간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아래 예문(15)를 살펴보자.

(15) 어떤 친구들은 <C-52>이제, 강박관념이니까 외긴 왔는데, (네) 어쩔 수 없이,
<C-53>이제 써논단 말야, 홀로어에다 <C-54>인제 짹 (바닥에다가요) 바닥에
자기가 엎드린 데, 사극같은 경우에, 신하는 (사극, 네) 엎드리면 그러믄, 써논단
말야, (네) 카메라에서 쓱 보니까 솔직히 상습적으로 써논단 말야, 몇마디를, (네)
걱정이 돼서 <C-55>인제 써논건데, (네) 카메라맨한테 불성실하게 뵈거야,

앞선 예문(14)과 위의 예문(15)는 담화 맥락상 이어지는 구조인데, 계속해서 생방송 드라마의 어려움에 대해 출연자가 토로하면서 그 당시 일어났던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C-52>의 ‘이제’는 발화를 시작하고 후행 발화와의 사이에 짧은 쉼을 두고 있지만 발화 길이가 워낙 짧고 분명하게 들리지 않아서, ‘이게’ 혹은 ‘예’처럼 들리기도 한다. <C-53>의 ‘이제 써 놓는단 말야’와 <C-54>의 ‘이제 짹 바닥에, 자기가 엎드린 데, 사극같은 경우, 신하는 엎드리면 써 놓는단 말야’의 경우 현재 시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이제’는 시간부사로서의 기능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제’가 상황의 전환이라는 의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C-54>의 ‘인제’는 상황의 전환이라기보다는 선행 발화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보이고, <C-55>의 ‘이제’는 대사를 미리 써놓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52>, <C-53>, <C-54>, <C-55> ‘이제’의 분석 결과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C	높낮이 (Hz)				길이 (msec)			세기 (dB)			
					선행 쉼	‘이제’	후행 쉼				
52	125.8	137.8	119.8		-	113.673	63.342	53.44	56.87	46.04	
53	134.9	104.2			-	176.361	-	54.28	52.77	56.12	50.45
54	93.2	90.6			-	242.712	-	52.07	47.98	51.65	
55	154.5	136.9	153.2	123.9	-	161.002	-	49.57	56.07	45.42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제’의 발화 길이가 모두 짧게 나타나고, ‘이제’의 앞뒤에 쉼이 나타나지 않았다. 기존의 논의에서 담화표지의 ‘이제’가 문장 앞에 나타나는 경우, 앞말과 쉼이 있고 뒷말에 이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그 밖의 경우는 대체로 앞말과 이어지며 뒷말과 쉼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했는데, 본고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이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시간부사는 대체로 앞말과 쉼이 있고 뒷말에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또한 분석 결과와 비교할 때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다.

담화표지의 음운적 특징을 논함에 있어 발화 길이나 쉼의 유무, 쉼의 길이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음의 높이나 세기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C-53>는 시간부사에 가깝게, <C-54>은 담화표지에 가깝게 판단되는데 음의 높이를 살펴보면 <C-53>보다 <C-54>의 높이가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C-55>의 ‘이제’는 ‘써 놓았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표지이므로 발화 길이는 짧지만 음의 세기가 높게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 예문(16)에서도 이와

같은 시제의 전환을 살펴 볼 수 있다.

(16) 어, 자기는 약간의 덜떨어진, 그런 캐릭터로 봤는데 정상이다, 정상인으로 해, 머, 이런 게, 근까 준비를 전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케 던지니까 아마 그 친구도, 아마 정재영 씨만큼이나 끝날 때까지 (네) 힘들어하고 (네) 대신 그 힘든 게 <B-4>인제 개인적인 굉장한 욕구로 와서 (네) 아마, 그 영화 속에 보여지는 그 미친 듯한 연기가 아마, 이케 (아) 몇 장면이 나오는데 (네) 어, 저는 아마, 그런 장면들이 관객들한테 굉장히 새롭게 어필되지 않겠는가.

B	높낮이 (Hz)				길이 (msec)			세기 (dB)		
					선행 씬	'이제'	후행 씬			
4	126.3	112.5	125.2	100.9	-	257.466	-	57.71	62.58	50.05

영화를 찍을 때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배우가 겪은 어려움을 감독인 자신이 짐작하고 있었다고 설명하는 담화에서 과거 시제를 사용하지 않고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인제'의 앞뒤에 씬 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표지는 바로 화자와 청자를 일시적으로 과거의 한 시점으로 되돌려 마치 현재 상황인 것처럼 묘사하는 장치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표지는 시간부사로서의 기능과 담화 표지로서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때/그 당시' 등으로 바꾸어 표현해도 자연스럽다.

시간부사 '이제'와 '지금'은 사전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설명되고 있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시간부사 '이제'와 '지금'은 교체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아래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간부사 '이제'와 '지금'은 거의 비슷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17) (가) 철수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나) 철수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18) (가)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자.
(나)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하자.

위의 예문 (17), (18)에서와 같이 '이제'와 '지금'은 비슷한 의미를 가진

어휘이기 때문에 담화표지로서 사용될 때에도 교체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아래 예문(19)를 살펴보자.

(19) B: 빠르면 세 시간, 어, 세시간 반에서 네시간씩 매일 걸리는데 (네) 그니까 저희가 만약에 여덟시나 아홉시에 영화를 찍으면, 정재영 씨는 두시나 세시에 일어나서, 이미 분장을 하고 (아, 그랬군요) 일절 식사를, 일절 못 했고, (네네) 그냥 그냥 기다리고 (네) 또 모습이 노인 역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했어요. (네) 그, 특히 농담은, 한마디도 안 했고, (몰입하려고 미리) 네, 감정에, 이게 지금 자기 얼굴하고 안 맞기 때문에 대사가 (네) 그래서 스, 아마, 정재영 씨는 아마, 말 못하는 아마, 고통을 엄청나게 안았을 겁니다.

영화 속에서 등장인물의 특성상 분장을 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래서 배우가 고생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담화표지 ‘지금’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위의 예문에서도 시제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위의 예문을 과거 시제에 맞게 바꾸면 아래와 같은데 (20-나)와 같은 예문은 어색하게 들린다.

(20) (가) 이제 지금 자기 얼굴하고 안 맞기 때문에 대사가...
 (나) 이제 지금 자기 얼굴하고 안 맞았기 때문에 대사가...
 (다) 그제 그때 자기 얼굴하고 안 맞았기 때문에 대사가...

위의 예문(20-다)에서 ‘이제’ 대신 ‘그제’를 사용하고 ‘지금’ 대신 ‘그때’를 사용하면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지만 실제 담화에서는 (20-가)와 같은 입말 담화를 사용함으로써 과거 사실을 발화 당시의 상황처럼, 그리고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시제를 전환하기 위해 사용한 담화표지 ‘지금’의 음성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발화 길이나 음의 높낮이, 세기 등에 있어서 앞선 예문(16)의 <4>의 ‘인제’와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B	높낮이 (Hz)			길이 (msec)			세기 (dB)		
				선행 쉼	‘지금’	후행 쉼			
지금	102.7	111.7	95.7	-	345.108	-	57.33	62.22	48.23

‘지금’은 ‘이제’와 마찬가지로 시간부사로서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담화표지 ‘이제’가 나타날 위치에 ‘지금’이 교체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담화 전체에 나타나는 ‘지금’의 횟수가 ‘이제’의 횟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보아 담화표지로 사용되는 경우도 현저히 적음을 알 수 있다. 발화자 A, B, C가 사용하는 ‘지금’의 횟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발화자 A	발화자 B	발화자 C
‘이제’의 횟수	14	22	75
‘지금’의 횟수	11	13	14

표 4 - 입말 담화에 나타나는 ‘이제’와 ‘지금’의 횟수

‘이제’를 사용하는 횟수는 발화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지만 ‘지금’을 사용하는 횟수는 발화자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담화표지의 사용이 개인적 특성이라고 본다면 ‘지금’은 아직까지 시간부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3.3. 담화 전개 표지

Schiffrin(1987:230)은 ‘Now’가 담화의 진행에 따라 화자에게 떠오른 생각의 단위나 전제, 혹은 참여자들의 역할을 보여준다고 언급하였다. 아래 예문(21)를 살펴보면 출연자인 감독이 다음 작품 구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사교육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부모들의 애환을 주제로 하여 다음 작품을 만들고 싶다고 출연자가 대답하고 있다.

(21) 백: 그 엄마들이 시들어가는 것이 어떤 차원, 어떤어떤 차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B: 아니, 그, 예를 들면 <B-13>이제 교육열이라는 문제 때문에 과연 이게 <B-14>인제 본인, 본인의 만족인지, 아이들 다치게 만드, (대리만족) 예, 이런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 사회를 가장 병들게 하는 <B-15>은제 공공의 적이라는 게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든단 말이죠. (네) 예를 들면 정말 사교육 열풍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이 엄마들 몇 명만, 막 다큐멘터리 쫓듯이 한번 쫓아가보면, 거기 정말, 어마어마한 드라마가 나올 것 같은 (네) 그래서 이걸 정말 공공의 적이다, 우리한테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애길 한번, 어, 짐참 드리는 말씀인데. (네) 스, 그동, 그동안에 만들었던 공공의 적이 굉장히 눈에 보이는 적들이라면, <B-16>인제 이런 정도로도 한번 가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B	높낮이 (Hz)					길이 (msec)			세기 (dB)		
						선행 쉼	'이제'	후행 쉼			
13	98.3	189.9	132.6			-	108.420	-	60.51	62.53	52.61
14	125.9	117.9	128.0	111.1	127.5	-	147.520	-	56.67	59.84	44.59
15	111.3	106.9	115.6	106.3	112.6	-	263.506	-	59.69	61.90	44.41
16	112.8	120.7				123.170	137.694	-	51.65	62.37	60.99

위의 예문에서 <B-13>, <B-14>, <B-15>의 '이제'는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 불필요한 요소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화자는 '이제'를 사용함으로써 선행 발화와 후행 발화를 연결하고 있다. 그리고 <B-16>의 '이제'는 선행 발화를 정리하면서 시간부사로서의 역할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문 (21)에 나타난 '이제'의 음성분석 결과는 <B-13>, <B-14>, <B-15>의 '이제' 앞뒤에 쉼이 나타나지 않으며, 음의 높낮이도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단지 <B-15>의 '은제'는 후행 발화가 '공공의 적'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사교육에 몰두하는 엄마들의 모습을 공공의 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 약간의 주저함이 나타나는 것을 발화 길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B-15>의 '은제' 발화 길이가 다른 담화표지보다

두 배 정도 길게 나타난 것에서 화자의 발화시 심경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B-16>의 ‘인제’는 선행 발화를 정리하면서 선행 발화와의 사이에 쉽이 나타났다. 이러한 쉽은 다른 연구들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선행 발화를 아우르면서 ‘이제’가 후행 발화에 연결되어 ‘이제부터 만드는 작품에 자신의 그러한 심리를 반영하겠다’는 내용의 발화가 나타나고 있다.

다음 예문(22)를 살펴보자. 아래 예문에서는 출연자가 고생하면서 촬영한 자료화면을 보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담화가 이어지고 있다.

(22) (자료화면)

백: 어우, 비 많이 맞으셨어요? 저 때?

C: 어, 비 많이 맞았어요. 저것도 <C-5>이제 야외에서 대단히 <C-6>이제, 정말하게 찍느라고 (예예) 여러 각도에서 찍다보니까 <C-7>인제, (네) 비를 좀 많이 맞았어요.

C	높낮이 (Hz)				길이 (msec)			세기 (dB)			
					선행 쉽	‘이제’	후행 쉽				
5	135.0	128.1	143.3	114.5	-	200.767	-	57.13	54.92	58.01	51.69
6	140.2	117.6	124.1	87.6	-	335.227	49.535	51.72	48.02	52.43	38.21
7	113.2	94.4	105.1	90.5	-	260.685	111.546	52.16	47.65	52.22	44.33

출연자가 비를 많이 맞으면서 촬영했기 때문에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가 3번 나타났다. 만약 위의 예문을 글말 담화로 표현한다면 ‘이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표현이 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 입말 담화에서는 이러한 담화표지가 많이 나타나고 위 예문의 발화자는 특히 ‘이제’를 자주 사용하는 화자이기 때문에 ‘이제’가 잇달아 나타났다.

위의 예문(22)에 나타난 담화표지 ‘이제’의 음성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화자 C의 발화 중 <C-5>, <C-6>, <C-7>에 나타난 ‘이제’나 ‘인제’는

발화의 앞뒤에 쉼이 나타나지 않고 ‘이제’의 뒤에 짧은 쉼이 나타났다. 그리고 음의 높낮이도 비교적 낮은 편이고 음의 세기에서도 특이한 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담화 구조를 살펴보면 담화 구조의 첫머리에 ‘어, 비를 많이 맞았어요’로 시작되고 <C-7>의 ‘인제’ 다음에 ‘비를 좀 많이 맞았어요’라는 발화를 반복하여 표현함으로써 처음 담화의 주제로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예는 담화 구조를 살펴보면 자주 나타나는 것인데, 특히 동일한 담화표지를 사용함으로써 담화 구조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화자의 심리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3.4. 후행 발화 강조 표지

담화표지는 담화를 전개하는 데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후행 발화를 강조하는 역할도 한다. 강조를 하기 위해서는 부연 설명을 덧붙이거나 선행 발화를 다시 한 번 반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 예문(23)과 같다.

영화 ‘이끼’를 촬영하고 나서 만화를 그린 원작자의 평가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사회자의 질문에 출연자가 답변을 하고 있는 담화 구조이다. <B-3>의 ‘인제’ 앞뒤에 나타나는 ‘나머지 부분’과 ‘엔딩이나 에필로그 부분’은 동일한 의미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23) 오히려 만화가 분량이 워낙 많아서 (네) 저걸 어떻게 줄일까가 궁금했는데 (네) 만화 속에서 자기가 표현하고 싶었던 부분, (네) 인제 비약하고 간 부분이 우리 영화 속에 있다, (아) 그래서 스, 작가로서 되게 대단히 만족스럽다고 표현을 해, 했는데요, (네) 그래서 그게 다 보여지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네) 나머지 부분도 특히 <B-3>인제 엔딩이나 에필로그 부분에 대해서, 난 이런 감성으로 영화 끝났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만화에는 없지만, 내가 써보겠다 그래서, 이렇게 써서 원고도 보내주고, 원작자하고 호흡이 잘 맞았던 거 같아요.

‘나머지 부분도’라는 선행발화가 ‘엔딩이나 에필로그 부분도’가 아닌 ‘엔딩이나 에필로그 부분에 대해서’로 발화의 일부분을 수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담화표지 ‘인제’를 사용하여 선행발화에 대한 부연설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선행 발화에 대한 오류 수정도 함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3>의 ‘인제’에 대한 음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B	높낮이 (Hz)				길이 (msec)			세기 (dB)			
					선행 쉼	‘이제’	후행 쉼				
3	127.1	113.7	120.2	112.0	-	141.148	-	60.19	57.84	60.66	58.83

‘인제’의 앞뒤에 쉼이 나타나지 않고 음의 높낮이도 대체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음의 세기가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인제’ 앞에 ‘특히’라는 어휘를 사용하여 후행 발화를 강조하고자 하는 화자의 심리를 엿볼 수 있다. 즉 위의 예문에서 화자는 담화표지 ‘인제’를 사용함으로써 선행 발화에 대한 부연설명을 덧붙이고, 후행 발화를 강조하면서 선행 발화에서 나타난 오류까지 수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4) 백: 그, 정치를 하셨던 것에 대해서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어떠세요?

C: 아니, 그, 나로선 큰 경험이구, (네) 거, 거, 한 때는 상당한 보람이에요, 정치를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 <C-73>이제 이런 사람은 조건여하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출마하는 사람들, (네) 되든 안되든 떨어져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큰 직업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국회의원 이 직업은 아니단 말야, (네) 근 다이, 자의든 타의든 일정 기간 선출이 돼서 국가를 위해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거란 말야, 국회내에서 그, 이건 봉사란 말야, 그, 직업이 아니란 얘기야, (네) 어, (그런 생각에서 하셨다는 거죠?) 아, 물론이죠.

위의 예문(24)에서는 연기자로서 정치를 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런데 <C-73>의 ‘이제’ 앞뒤로 같은 의미의 발화가 연결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치를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조건 여하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출마하고, 되든 안되든 떨어져도 또 나오기 때문에 정치를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과 자신은 차별화 될 수 있는 사람이며 자신은 정치를 직업으로 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 생각했다는 화자의 발화가 더욱 강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위의 예문에서 ‘이제’와 ‘이제’의 다음에 이어지는 부연설명을 빼고 담화를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24') 백: 그, 정치를 하셨던 것에 대해서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어떠세요?

C: 아니, 그, 나로선 큰 경험이구, (네) 거, 거, 한 때는 상당한 보람이에요, 정치를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국회의원이 직업은 아니단 말야, (후략)

담화표지 ‘이제’와 함께 그 뒤에 따르는 부연설명을 빼고 담화를 구성한 위의 예문(24')을 보면 정치를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앞의 예문 (24)와 비교할 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했던 자신의 심경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느낌이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화자는 ‘이제’와 함께 후행 발화를 덧붙여 선행 발화를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거기에 자신의 심경까지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예문(24)에 나타난 <C-73> ‘이제’에 대한 음성 분석 결과를 보면 아래와 같다.

C	높낮이 (Hz)			길이 (msec)			세기 (dB)		
				선행 쉼	‘이제’	후행 쉼			
73	170.1	194.1	191.2	-	118.458	-	54.18	57.63	55.62

‘이제’의 음성 분석 결과를 보면 발화 길이가 아주 짧고 ‘이제’의 앞뒤에 쉼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담화표지의 비해 음의 높낮이가

높게 유지되고 음의 세기가 크게 유지된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화자는 담화표지 ‘이제’를 사용하여 선행 발화에 대한 부연설명을 덧붙일 뿐만 아니라 운율적 자질까지 없어서 후행 발화에 대해 강조하고 싶은 자신의 심리를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예문을 살펴보자. 아래 예문(25)에서는 아역 배우들의 타고난 소질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신세대 연기인들이 타고난 재능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개발해야 한다는 화자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 (25) 백: 아역들이 아주 잘해서 (네, 잘해요) 또 그 인제, 신세대 연기인들 있잖아요, 또, 워낙, 그 인기도 많구요, (음) 그, 아역과는 또 다르잖아요.
- C: 음, 다르죠, 달르데, <C-38>인제, 성인연기래는 것은 천부적인 재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닌 거고, 연, 후발적으로, 자꾸 개발해야 됩니까, 거 요즘, 보게 되면 <C-39>인제, 젊은 친구들이, (네) 내가볼땐 소재들이 너무 좋아요, (소재들요?) 정말 잘 생기고 정말 멋있고, 짹짹 뻗고, 다 좋은데, 문제는, 애, 애 네들에게 기본적인 조건을 지금 더 단단하게 다지는 이 과정이 짐 우리가 부족하단 얘기에요,

예문(25)에 나타난 발화자 C의 담화를 살펴보면 아역 배우들은 천재적인 재능으로 연기를 할 수 있는 데에 비해 신세대 연기인들은 성인 연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소질을 개발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C-38>의 ‘인제’ 다음에 후행 발화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C-39>의 ‘인제’는 예전과 달리 요즈음 활동하는 젊은 연기자들의 외모 조건이 아주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부사로서의 기능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아래 예문과 같이 ‘인제’의 위치를 바꾸거나 생략해도 자연스러운 입말로 여겨진다. 하지만 (25'-가)와 같이 발화하면 시간부사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젊은 연기자들의 외모가 훌륭하다’라는 내용의 후행 발화를 강조하는 기능도 함께 가질 수 있는 것이다.

(25') (가) 요즘, 보게 되면 <39>인제, 젊은 친구들이, 내가볼땐 소재들이 너무 좋아요
 (나) 요즘, 보게 되면 젊은 친구들이, 내가볼땐 <39>인제, 소재들이 너무 좋아요
 (다) 요즘, 보게 되면 젊은 친구들이, 내가볼땐 소재들이 <39>인제, 너무 좋아요
 (라) 요즘, 보게 되면 젊은 친구들이, 내가볼땐 소재들이 너무 좋아요

<C-38>, <C-39>의 '인제'에 대한 음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C	높낮이 (Hz)					길이 (msec)			세기 (dB)			
						선행 쉼	'이제'	후행 쉼				
38	135.8	133.5	183.9	171.3	177.3	-	376.627	226.472	56.16	45.49	58.48	42.81
39	151.3	177.8	158.0			-	107.316	44.222	53.86	57.49	43.38	

음성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선행 발화 다음에 쉼 없이 '이제'의 발화가 이어지고 '이제' 다음에 쉼이 뒤따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C-38>의 '인제' 발화 길이가 길고 '쉼'도 훨씬 길게 나타난다. 음의 높낮이도 처음에는 낮게 시작되지만 발화 마지막에 아주 높게 끝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발화 길이나 쉼, 음의 높낮이를 보면 후행 발화에 집중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화자의 심리를 알 수 있다. 실제 담화 구조를 살펴보면 <C-38>의 '인제' 다음에 아역 배우와 성인 배우의 차이점에 대해 아주 긴 설명이 이어지는 것도 이러한 화자의 심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5. 망설임 표지

담화표지의 기능 중에서 여러 논고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화용적 기능 중의 하나가 시간 벌기 기능이다. 시간 벌기는 화자가 후행 발화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거나 발화를 유지하고 싶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표현하기에 꺼끄러운 발화가 이어질 때 나타나는 기능이다. 본고에서도 이러한 예문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정인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거

나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표현하거나 자신에 대한 자랑이 이어질 때 혹은 금기시 되는 표현에 대해 후행 발화가 이어질 때 담화표지 ‘이제’가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예문(26)에서는 출연자가 자신의 작품 중에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시트콤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드라마 속 등장인물의 특징 때문에 ‘야동 순재’로 불리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출연자 자신도 사적인 생활에서는 성인용 영상물을 접한 경험이 있지만 그런 영상물을 본다는 것이 예전에는 금기시되던 사회적 분위기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이 맡은 역할의 인물이 드라마 중에서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해 자신이 거부 반응을 일으켰다는 설명이 <C-23>의 ‘이제’ 다음에 이어지고 있다.

(26) 백: 네, 야한 비디오 보실 일이 평상시에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짐 야동 순재로 이렇게 (음) 이름이 이렇게 많이
C: 인터넷을 통해서 본 적은, 물론 없죠, 근, 내가 머, 잘 할 줄 모르니까, 그나마 방식을 모르는데, 그런데 물론 그, 우리가 젊었을 땐 비디오를 통해서 좀 봤죠, (네해해) 근, 머, 누구나 자기고 있는 관심사기 때문에 안 볼래야 (네) 안 볼 수 없는 거지만은 (네, 네) 그러나 <C-23>이제, 그걸 봤을 때, 우리때만 해도 그거는, 금기란 말이에요, (네) 그담에 걸 보게 되면, 어떤 의심의 대상이 된다고, (예) 그, 켈 침에 그, 하이킥에 그 부분이 나왔을 때, 내가 좀 거부 반응 일으켰어요, (네) 아무리 우리가 시트콤이지만 그런거꺼정 해서 웃겨야 되겠냐, (후략)

C	높낮이 (Hz)				길이 (msec)			세기 (dB)		
					선행 침	‘이제’	후행 침			
23	163.8	160.3	178.3	124.1	-	198.533	577.586	48.74	55.85	51.10

음성 분석 결과를 보면 ‘이제’의 발화 길이에 비해 아주 긴 침이 뒤따르고, 음의 높낮이는 전체적으로 높다가 갑자기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

다. 즉 평상시에 성인용 영상물을 접하는 일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는 사회자의 말에 젊은 시절에는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발화를 먼저 하면서 그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관심사라는 것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 합리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곧 이어지는 발화에서는 그러한 행위가 사회적인 분위기로 판단했을 때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담화표지의 발화 길이에 비해 아주 긴 쉼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래 예문(27)를 살펴보자. 성인 연기자들이 타고난 재능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소질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마무리하면서 <C-39>의 ‘인제’는 담화 초기에 발화했던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을 다시 덧붙이면서 자신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C-40>의 ‘인제’에서는 소질을 개발하고 있는 신세대 연기인 중에서 특정 인물의 이름을 거론하며 예를 들고 있다. ‘근까 인제 재밋는 건’이라고 발화를 시작하면서 실제 시트콤 드라마 이후에 인기가 급상승했지만 연기력을 다지기 위해 동숭동에서 연극을 하고 있는 특정 연기자의 이름을 거론하기 전에 머뭇거리는 것이 아래 분석 결과에서 드러난다.

(27) 백: 아역들이 아주 잘해서 (네, 잘해요) 또 그 인제, 신세대 연기인들 있잖아요, 또, 워낙, 그 인기도 많구요, (음) 그, 아역과는 또 다르잖아요.

C: 음, 달르죠, 달른데, <C-38>인제, 성인연기래는 것은 천부적인 재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닌 거고, 연, 후발적으로, 자꾸 개발해야 됩니다. 거 요즘, 보게 되면 <C-39>이제, 젊은 친구들이, ... (중략) ... 근 뭐냐, 연기 바탕이 없기 땀에 그런거라, 머, <C-40>인제 그래가지고 정신 좀 채리고, 머리 좀 좋은 사람들, 그 생각있는 사람들은 물론, 후천적으로 다시 공부를 하지, 이건 아니구나, (네) 해서 또 가서 연극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 있어요, (네) 근까 <C-41>인제, 재밋는 건, 우리 먼저 하이킥의 정일우 걸은 군은, 짐 동숭동에서 연극하고 있어, (네) 거,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C	높낮이 (Hz)				길이 (msec)			세기 (dB)			
					선행 쉼	'이제'	후행 쉼				
40	107.3	186.4	126.7		-	187.783	-	56.41	51.84	56.43	42.57
41	140.3	110.4	125.0	109.6	-	285.516	783.326	54.70	51.32	56.37	46.52

<C-38>, <C-39>의 '인제'는 앞선 논의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에서는 논하지 않겠다. 먼저 <C-40>의 '인제'를 살펴보면 성인 연기에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 번 반복하면서 정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화용적 기능은 앞서 논의했던 후행 발화에 대한 강조라기보다는 발화를 마무리하고 담화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여겨진다. 그러나 <C-41>의 '인제'를 살펴보면 음의 높낮이나 세기는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발화 길이에 비해 아주 긴 쉼이 뒤따르는 것을 알 수 있다. 긴 쉼이 뒤따른다는 것은 후행 발화에 대해 강조하거나 혹은 망설임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의 예문(27)에서는 망설임으로 판단된다. 개인적인 대화가 아니라 방송에서 특정 인물의 이름을 거론한다는 것은, 설령 좋은 예를 들어 이야기하더라도 망설이게 되는 부분임을 감안할 수 있다. 아래 예문(28)에서도 이와 같은 예를 찾아볼 수 있다.

(28) 옛날 우리 땀요, (네) 그때는, 예를 들어서 그 당시 <C-42>인제, 우리 티비씨의 톱스타가 결국은, 텔레비전 영화계의 톱스타예요, (네) 장미희, 정윤희, 유지인, (트로이카라고), 거, 트로이카가, 텔레비전의 스타뿐만 아니라 영화계 스타라고, (네네네) 한참 잘나갈때, (네) 근데, 거기 편차가 조금 있어, (네) <C-43>인제, 젤 퍼스트란 아가 장미희라고, (네) 그, 장미희는, ... (중략) ... 정윤희는 용모상으로 타고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예뻐요) 어, 싸이즈래든지, 다만 이 친구가 <C-44>인제 부산출신이니깐 방언이 조금 있었는데 ... (중략) ... 유지인씨는 적어도 제대로 중대 영, 연극영화과를 나온 사람이예요, 근데 <C-45>인제, 연기를 개안하는 과정에 좀 차이가 있단 말야, (네) 티저, 대사 구사력에 대한 문

제가 이게, 어느 과정을 뛰어 넘어야, 그게, 이 자유자재로 구사를 하는데, 고 한 계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상당히 고전을 합니다, 그럼 <C-46>이제, 편차가 생기는데, 우리는 개인 지도를 해 줬다구, 아 불러가지구 (네네) 좀 딸리는 친구를 불러서, (... 중략 ...) 이라고 가르쳤다고.

예전에는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연기 지도를 했다는 것에 대해 설명하면서 위의 예문(28)에서도 특정 연기자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그들의 연기력에 대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먼저 특정 방송국에서 유명세를 누리던 세 명의 연기자가 영화계에서도 인기를 누렸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 세 명의 연기자에 대한 화자의 평가가 드러난다. 그런데 특정 인물의 이름을 거론하더라도 음성 분석 결과를 보면 화자의 심리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 번 알 수 있다. <C42>~<C46>의 담화표지에 대한 음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C	높낮이 (Hz)					길이 (msec)			세기 (dB)			
						선행 쉼	'인제'	후행 쉼				
42	64.6	50.3	115.7	60.6	52.8	-	270.113	557.013	56.15	49.53	56.77	47.54
43	151.5	174.2	126.3			-	202.339	53.028	50.95	55.93	49.80	
44	79.9	151.1	85.2	150.5	129.8	-	246.930	75.158	54.12	49.83	56.69	43.83
45	167.3	162.4	188.6	151.7		-	239.380	596.638	52.58	56.02	44.35	
46	114.5	92.3	195.0	168.8		-	179.539	582.213	56.85	52.25	56.30	40.31

아무리 좋은 예를 들어 그 당시에 유명세를 누리던 연기자라 할지라도 실제 이름을 거론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C-42>의 '인제' 다음에 긴 쉼이 뒤따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음의 높낮이도 대체적으로 아주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일단 특정 인물의 이름을 거론한 다음부터는 <C-43>의 '인제' 다음에 '제일 잘 나가던 연기자가 장미희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에는 거침없이 발화가 이어지고 쉼이 뒤따르기는 하지만 아주 짧은 쉼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C-44>의 '인제'는 '정윤희'가 부산 출신이라서 방언 때문에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C-43>과 거의 비슷한 발화길이와 쉽이 나타난다.

다음에는 ‘유지인’이라는 연기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연기자였지만 대사를 구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따라서 <C-45>의 ‘인제’ 다음에 긴 쉽이 나타나고, 선행 발화와 반대되는 내용의 후행 발화가 이어지기 때문에 음의 높이가 비교적 높게 유지된다. 연극영화과를 졸업했지만 대사 구사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발화가 이어지는데 음의 높낮이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후행 발화를 강조하고 싶은 화자의 심리가 드러난다. 그리고 <C-46>의 ‘이제’ 다음에 계속되는 발화에서는 연기력에 편차가 생기고 선배들이 연기지도했다는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서는 선행 발화에 이어지는 내용의 발화이지만 대사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서 연기력에 편차가 생겼다는 발화를 하기 때문에 특정 연기인의 연기력에 대한 평가처럼 느껴질 수 있어서 <C-46> ‘이제’ 이후에 긴 쉽이 뒤따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담화표지 ‘이제’는 쉽 대신 사용되는 표지인 동시에 시제전환표지로도 사용되고, 담화를 전개하거나 후행발화를 강조하거나 화자의 망설임을 표현할 수 있는 표지이다. 본고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담화표지 ‘이제’의 앞이나 뒤에 쉽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은 ‘이제’가 쉽의 자리에 대신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제전환표지로 사용되는 ‘이제’는 과거 사실을 현재 사실처럼 이야기함으로써 청자와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장치로 사용된 표지이다. 이러한 경우 쉽이나 발화 길이, 음의 높낮이, 세기 등에 있어 특이한 점이 관찰되지 않았다. 오히려 담화를 전개하거나 후행발화를 강조하거나 망설임을 나타내는 경우에 ‘이제’의 발화 음이 높거나 길거나 세거나 혹은 쉽이 길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IV. 담화표지 ‘이제’ · 시간부사 ‘이제’

4.1. 담화표지 ‘이제’와 시간부사 ‘이제’의 비교

일상 생활에서 입말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행위이다. 흔히 ‘현재’라고 부르는 순간은 인간의 의식 속에 존재하는 시간적 개념일 뿐, 물리적 시간의 흐름 속에서는 규명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발화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순간에도 시간은 계속 흐르고, ‘현재’라고 설명하려 했던 상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발화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발화 시각 이전의 상황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시간부사¹⁹⁾이다.

최현배(1971:594-595)에 따르면 시간부사는 ‘때 어찌씨’라 하여 ‘그 일이 들어남을 때로써 꾸미는 어찌씨’라고 하여 ‘이제, 인제, 방금, 금방, 오늘’ 등을 예로 들어 ‘이적의 때의 점을 보이는 때 어찌씨’로 풀이하였다.

손남익(1995:20-22)은 “부사는 문장 내에서 필수적인 성분이 아니고 문장 내의 요소나 문장 전체의 의미를 수식·한정하는 요소이다”라고 밝히면서 아래²⁰⁾와 같이 부사를 분류하였다.

19) 심정애(1990:188)는 시간부사가 시간성을 표현해 주되, 시계시간이나 물리적인 시간 그대로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간적 상황에 있어서 화자의 인식 정도나 또는 화자의 표현 의도에 따라 달리 선택되어 표현된다고 언급하였다.

- 20)
1. 문장부사 : 문장 전체를 수식·한정, 통사론적 위치의 제약 있음.
 - ① 서법부사 : 문장의 의미를 수식·한정
 - ② 접속부사 : 문장과 문장을 연결
 2. 성분부사 : 용언의 의미를 수식·한정한다.
 - ① 통사론적 자유부사 : 시간부사, 장소부사
 - ② 통사론적 제약부사 : 양태부사, 정도부사, 부정부사
 - ③ 통사론적 준제약부사 : 상징부사

그리고 시간부사 ‘이제’는 통사론적 위치의 제약 없이 문장 내에서 서술어 앞의 어떠한 위치로도 이동이 가능하다.²¹⁾

(29) (가) 이제 철수가 밥을 먹었다.

(나) 철수가 이제 밥을 먹었다.

(다) 철수가 밥을 이제 먹었다.

그리고 손남익(1995:76)에서 시간부사는 의미론적 제약으로 인해 긍정문과 호응할 수 있는 부사와 부정문과 호응할 수 있는 부사가 있다고 언급하였다.²²⁾

그렇다면 시간부사 ‘이제’와 사전상의 의미가 유사한 ‘지금’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자. ‘이제’와 ‘지금’은 어휘 의미가 거의 유사한 시간부사로서 장영미(2010:33-39)에서도 ‘이제’와 ‘지금’은 제2언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에서 필수적인 표현 어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학습자들이 구별하기 어렵고 틀리기 쉬운 단어들이라고 밝혔다.

21) 그러나 이철우(1982:34)에서는 수식받는 말 앞에 놓임이 원칙이고, 놓이는 위치에 따라 의미 차이를 수반함을 알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다음의 세 문장을 예로 들었다.

(가) 인제 염려없이 어떤 조건에서도 살 수 있을 것 같다.

(나) 염려없이 인제 어떤 조건에서도 살 수 있을 것 같다.

(다) 염려없이 어떤 조건에서도 인제 살 수 있을 것 같다.

22) 아래 예문에서와 같이 부정문과 호응하면 의미가 달라지거나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해지는 경우도 있다.

(가) 철수가 이제 왔다.

(나) 철수가 아직 안 왔다.

(다) 철수가 이제 온다.

(라) 철수가 아직 안 온다. / 이제 안 온다.

(마) 철수가 이제 오겠다.

(바) 철수가 이제 안 오겠다.

(30) (가) 나는 지금/이제 대학생이다.

(나) 나는 지금/이제 기숙사에서 산다.

(다) 나는 지금/이제 한국어를 전공한다.

위의 예문(30-가)에서 ‘나는 지금 대학생이다’라는 표현은 현재시점에 자신의 신분이 대학생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데 반해, ‘나는 이제 대학생이다’는 현재시점에 대학생이라는 의미 외에 발화 시각 전의 상황에서는 대학생이 아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30-나)의 예문에서도 ‘나는 지금 기숙사에서 산다’라는 표현은 현재시점이 포함된 기간에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 상황을 표현하는 데 반해, ‘나는 이제 기숙사에서 산다’라는 표현은 발화시각을 포함한 현재 시점 전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30-다)의 예문 ‘나는 지금 한국어를 전공한다’라는 표현은 현재 시점 혹은 현재 시점이 포함된 기간에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데 반해 ‘나는 이제 한국어를 전공한다’라는 표현은 현재 시점 혹은 현재 시점을 포함한 미래의 시간에 계속해서 한국어를 전공할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그 전의 상황은 한국어를 전공하지 않았음을 동시에 나타낸다. 즉 ‘이제’와 ‘지금’은 ‘now’라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각기 다른 전제를 내포하고 있다.

(31) (가) 4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바로 지금이다. (○)

(나) 4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바로 이제다. (×)

(다) 당장 나가라, 지금 당장! (○)

(라) 당장 나가라, 이제 당장! (×)

위의 예문(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은 단순한 현재시점, 혹은 현재시점이 포함된 짧은 시간을 표시하는 데 반해 ‘이제’는 ‘지금’보다 훨씬 넓은 시간대를 의미하므로 짧은 시간을 표현하는 담화에는 어울리지 않

는다.

위의 예문 (31-나), (31-라)와 같이 단순한 현재 시점을 표현하는 담화에는 ‘이제’를 사용할 수 없고, ‘이제’는 ‘지금’보다 넓은 시간대를 나타내면서 발화 전후의 상황이 전환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아래 예문 (32)에서 ‘이제’를 ‘지금’으로 바꾸어 표현하면 어색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가 단순한 현재 시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의미하는 ‘현재바꿈 시점’²³⁾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아래 예문(32)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어떤 행위를 ‘한다’, 혹은 ‘안 한다’의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상황과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것임을 암시하는 시간부사로써 ‘이제’를 사용한다.

(32) 백:그거 하시다가 그렇게 안 된 거군요.

B:네, 이번에 이끼가 아무리 잘 되도 이제/*지금 안 합니다. 그거.

백:아, 이끼는 잘 돼도

B:잘되면 이, 저만 이제/*지금 계속 찍어서

백:아끼셨다가, 아, 그렇게 될까요?

그리고 시간부사 ‘지금’과 ‘이제’는 화자의 발화 심리나 태도를 나타냄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아래 예문(33)에 나타난 대화를 살펴보면, 시간부사 ‘이제’의 쓰임은 자연스럽지만 시간부사 ‘지금’의 쓰임은 어색하거나 비문이 되고 만다. 그것은 화자 B의 반문적 대답에 부정적이거나 비난, 원망 등의 감정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33) A : 이번에 내가 진짜 잘못된 것 같다.

B : 그걸 이제 알겠어? / *그걸 지금 알겠어?

23) 장영미(2010)은 시간부사 ‘이제’가 현재 시점 영역 중에서 ‘현재시작 시점’, ‘현재끝남 시점’, ‘현재바꿈 시점’으로 다시 분류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감정적 의미가 내포된 문장에서 ‘지금’의 쓰임은 불가능하고 ‘이제’의 쓰임이 가능하다. 거기에 운율적 자질을 더한다면 화자의 감정을 더 또렷이 드러낼 수 있다. 즉, 시간부사 ‘이제’는 단순한 현재 시점이나 현재 시점이 포함된 시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상황이나 정보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고, 화자의 감정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어휘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간부사 ‘이제’와 ‘지금’의 차이 때문에 시간부사 ‘이제’는 담화표지로 널리 쓰일 수 있는 반면, 시간부사 ‘지금’은 담화표지로 쓰이는 경우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사가 문장 내에서 필수적인 성분이 아니지만 시간부사 ‘이제’를 사용함으로써 문장의 의미를 더 자세히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담화표지 ‘이제’ 또한 필수적인 성분은 아니지만 화자의 발화 심리를 더 자세히 전달할 수 있다. 거기에 운율적 요소²⁴⁾까지 더해지면 화자의 발화 태도를 더 자세히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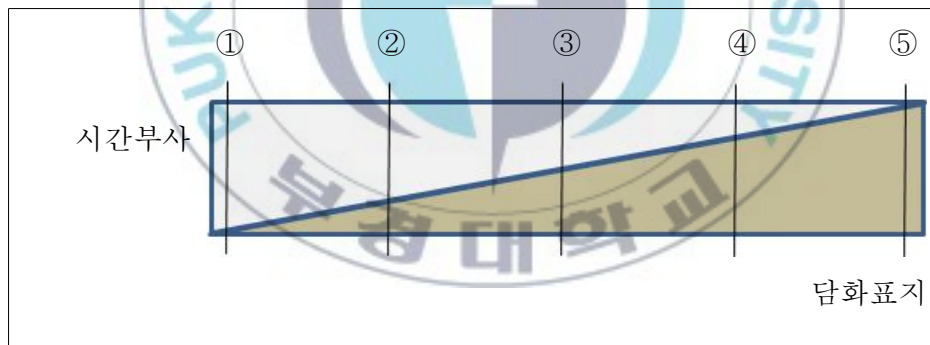


그림 6 - 입말 담화에 나타나는 ‘이제’의 여러 가지 유형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이제’가 시간부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①과 같은

24) Nancy Bonvillian(한국사회언어학회 편역, 2002:18)에서 인간 언어는 자·모음의 사용과 더불어 언어의 소리나 리듬을 대조시키기 위해 운율적 혹은 초분절음적 자질을 사용하는데 의미에 많은 영향을 주는 운율적 자질은 강세, 음조(pitch), 음장(length)이라고 밝혔다.

경우 현재 시점이나 지역의 상황을 설명하는 어휘 의미를 지닐 것이다. 그러나 시간부사 ‘이제’가 어휘 의미의 변이나 전환 과정을 거쳐 의미 전달에는 불필요하게 여겨지지만 화자의 발화 태도를 나타낼 수 있는 담화표지로 사용된다. 거기에 운율적 자질을 엮음으로써 화자의 다양한 감정까지 드러내는 담화표지로 사용될 수 있다.²⁵⁾

그러나 실제 담화에 나타나는 ‘이제’는 ①이나 ⑤와 같이 완전한 시간부사나 완전한 담화표지로 쓰인 것보다는 ②, ③, ④와 같은 중간 단계의 ‘이제’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⁶⁾ 즉 구어적 문어담화나 문어적 구어담화가 존재하는 것과 같이 시간부사 ‘이제’와 담화표지 ‘이제’가 양분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담화를 분석해 보면 시간부사와 담화표지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다음 예문(34)을 살펴보자.

(34) 백: 그거 하시다가 그렇게 안 된 거군요.

B: 네, 이번에 이끼가 아무리 잘 되도 <B-8>인자 안 합니다. 그거.

백: 아, 이끼는 잘 돼도

B: 잘되면 이, 저만 <B-9>인제 계속 찍어서

백: 아끼셨다가, 아, 그렇게 될까요?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를 두 편이나 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사가 어려운 재정 상태를 겪고 있음을 토로하면서 그에 대한 이유를 선행

25) 최영자(2003:24-25)에 따르면 시간부사 ‘이제’가 내용어로서 가졌던 본디 의미가 퇴색되면서 서술어 수식의 기능이 없어지고 상황에 따라 화자의 다양한 감정을 드러내는 담화표지 ‘이제’로 바뀌었다고 언급하였다.

26) 이기갑(1995:269)에 따르면 담화표지 ‘이제’의 기능은 시간부사 ‘이제’의 기능과 완전히 독립된 것이 아니라 시간부사 ‘이제’나 담화표지 ‘이제’가 모두 이전의 지속된 상황이나 행동을 전제하면서 발화 시각 이후에는 그 전의 상황과 다른 양상이 전개될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의적인 중간 단계의 ‘이제’가 있다고 밝혔다.

담화에서 펼쳤다. 흥행이 된 영화 다음에 영화사에 도움을 준 지인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영화를 제작하게 했다가 실패를 하고 그로 인해 영화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두 번 다시는 그런 치기를 부리지 않겠다는 화자의 각오를 밝히고 있다. <B-8>과 <B-9>에 나타난 ‘인자’와 ‘인제’는 담화 맥락으로 보아 시간부사로 판단되지만 실제 발화를 들어보면 담화표지처럼 느껴지는데 음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B	높낮이 (Hz)				길이 (msec)			세기 (dB)			
					선행 쉼	‘이제’	후행 쉼				
8	101.9	110.8	108.2		-	118.381	-	57.82	61.22	58.46	
9	96.9	84.2	91.8	75.7	-	333.539	-	55.61	50.65	57.73	41.91

<B-8>의 ‘인자’는 선행 발화와 후행 발화에 쉼 없이 연결되어 발화되고, 음의 높낮이도 낮아서 담화표지의 전형적인 운율적 특징을 보인다. 단지 음의 세기가 크게 나타났는데 ‘앞으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후행 발화를 강조하고 그런 자신의 심경을 드러내는 장치로서 ‘이제’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B-9>의 ‘인제’도 쉼 없이 연결되어 발화되고 음의 높낮이나 세기에서 별다른 특징이 보이지 않는다. 단지 <B-8>의 ‘인자’에 비해 음의 길이가 두 배 이상 길게 발화될 뿐이다. 이와 같은 ‘인자’나 ‘인제’ 등은 시간부사와 담화표지 중 어느 한 가지라고 구분하여 단정할 수 없는 ‘이제’인 것이다. 앞서 논의했던 쉼 대용 표지에 나타난 ‘이제’나 시제 전환 표지에 나타난 ‘이제’ 등도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가 여러 번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어느 것을 담화표지로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아래 예문(35)를 살펴보자.

(35) 백: 그러세요? 아니신 거 같아요, 이끼에 대한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B: 아뇨, 점점 더 무서워지구요, 그리고 영화는 언제나 지나가는, 지나가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과결 빨리 잇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현실로, 실미도 전과 상, 똑같이, (네) 똑같이 긴장하고, 그리, 그 대신에 이런 건 있었어요, 왕의 남자가 흥행이 됐을 때 (네) 그때 투자와 제작자로 이렇게 임벌버렸는데, 그 때는 정말 아, 흥행이 싫더라고요, (그 영화의 흥행에?) 아, 두번째 이게 천만이 넘어가니까 (네에) 아, <B-20>인젠 내가 <B-21>은제, <B-22>이제, 뭘 해야 되나, 예를 들면, (네) 그래서 좀, 흥행이라는 그, 단어가 (네) 좀 싫어지더라고요.

영화 흥행에 대해 감독으로서의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 ‘이제’가 세 번 연속으로 나타나고 ‘흥행이 싫어진다’라고 말하면서 일반적인 상식에 맞지 않는 화자의 의견이 덧붙여지고 있다. ‘이제’가 세 번 나타나고 있는데 선행 발화와 후행 발화의 내용은 ‘흥행이 싫다’라는 동일한 명제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단지 선행 발화에서는 ‘흥행이 싫다’라는 직접적 언급을 했고, 후행 발화에서는 ‘예를 들면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흥행이라는 단어가 싫어졌다’라는 완곡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B-20>, <B-21>, <B-22>에 해당하는 음성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	높낮이 (Hz)					길이 (msec)			세기 (dB)			
						선행 쉼	‘이제’	후행 쉼				
20	110.1	100.8	119.3	104.7			256.955		61.15	57.16	62.80	54.69
21	122.3	107.9	126.5	97.5			408.001	103.379	60.98	58.22	62.69	53.50
22	158.5	91.4	103.0				351.985	763.986	50.01	63.15	49.61	

‘쉼’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발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35') 천만이 넘어가니까 (네에) 아, 인젠내가은제 이제 ∨ ∨ ∨ ∨ ∨ ∨ ∨ 뭘 해야 되나, 예를 들면, (네) 그래서 좀, 흥행이라는 그, 단어가 (네) 좀 싫어지더라고요.

‘인젠내가은제’가 마치 하나의 발화체인 것처럼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짧은 쉼이 나타난다. 그리고 다시 ‘이제’가 발화된 후 아주 긴 쉼이 뒤따르는 후에 ‘홍행이라는 그 단어가 싫어진다’라는 내용의 발화를 망설이면서 이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담화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홍행이 싫어졌다는 자신의 표현을 청자나 일반 시청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 화자가 고민하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그래서 <B-22>의 ‘이제’ 뒤에 긴 쉼이 뒤따르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망설임의 표지로 쓰인 ‘이제’는 시간부사일 수 없는가 하는 것이 문제로 남는다.

선행 발화에서 ‘홍행이 싫더라구요’라고 발화하고 나서 ‘두 번째 천만을 넘기고 나서 이제는 뭘 해야 하나?’라는 발화를 덧붙이려고 했는데, 청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의견이 수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연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는 후행 발화 전체를 아우르고 문장 전체에 부사로 연결된다.

(35") 천만이 넘어가니까 (네에) 아, 인젠 내가 은제 이제 ∨ ∨ ∨ ∨ ∨ ∨ 뭘 해야 되나,

↑
↑
↑

(부사) (담화표지)(부사)

예를 들면, (네) 그래서 좀, 홍행이라는 그, 단어가 (네) 좀 싫어지더라구요.

위의 예문에서와 같이 담화표지 ‘이제’와 시간부사 ‘이제’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담화 맥락에 따른 ‘이제’의 화용적 기능을 살펴보아야 하고, 운율적 특징까지 함께 고찰해야 한다.

4.2. 화자에 따른 ‘이제’의 사용 양상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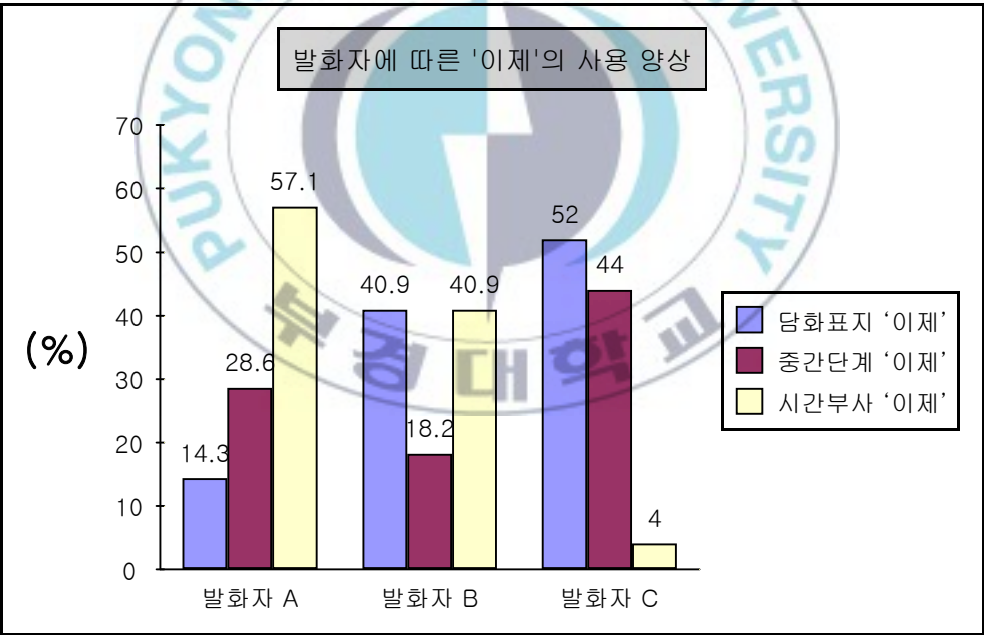
본고에서 분석 자료로 다룬 출연자 A의 담화를 살펴보면 다른 두 명의 화자에 비해 ‘이제’를 매우 적게 사용한다. 시간부사로 사용된 ‘이제’와 담화표지로 사용된 ‘이제’, 그리고 중간 단계의 ‘이제’를 구분하여 발

화자에 따른 사용 횟수를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발화자 A	발화자 B	발화자 C
담화표지 ‘이제’	2 (14.3%)	9 (40.9%)	39 (52.0%)
중간단계 ‘이제’	4 (28.6%)	4 (18.2%)	33 (44.0%)
시간부사 ‘이제’	8 (57.1%)	9 (40.9%)	3 (4.0%)
전체 ‘이제’	14	22	75

표 5 - 발화자에 따른 ‘이제’의 사용 양상

‘이제’를 가장 적게 사용한 발화자 A의 경우에는 시간부사로 ‘이제’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제’를 가장 많이 사용한 발화자 C의 경우에는 담화표지로 ‘이제’를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위의 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제’를 담화표지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발화 습관에 따른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이제’를 많이 사용

하는 화자의 경우 대부분 담화표지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제’를 적게 사용하는 화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시간부사로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담화표지 ‘이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화자는 담화표지의 화용적 기능을 대신하는 다른 어떤 언어적 장치를 사용하는 것일까? 담화표지 ‘이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발화자 A의 경우 씬이 자주 나타나고 오래 나타난다든지, 선행 발화를 반복한다든지 혹은 ‘머’를 자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화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명제 의미와 함께 자신의 발화 심리를 청자에게 알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담화표지는 그러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V. 결론

담화표지는 명제의 의미와 함께 화자의 발화 태도까지 표현할 수 있는 언어적 수단이다. 한국어의 담화표지 중에서도 본고에서는 ‘이제’를 중심으로 입말 담화에서 나타나는 ‘이제’의 운율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기존의 담화표지 연구에서 운율의 역할이 비중있게 다루어지지 않아 본고에서는 입말 담화에 나타나는 ‘이제’의 운율적 특징 중에서 음의 높낮이, 길이, 세기, 씬 등을 측정하여 화용적 기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제’가 시간부사의 어휘적 의미에서 담화표지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전제 하에 현재 발화 시점이나 시간을 나타내는 ‘이제’와 상황의 전환이나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이제’가 있음을 보았다. ‘이제’는 단순한 시점이나 시간이 아닌 상황의 전환을 드러내는 시간부사로서 담화를 진행하면서 화자의 의식의 전환을 표현하거나 선·후행 발화 등을 연결해 주기도 하고 화자의 심리를 나타내는 담화표지임을 밝혔다.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첫째, 세 사람의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개인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화용표지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백이면 백 사람의 유형이 모두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고 몇 가지의 유형이 나타날 것인데, 본고에서 다루는 자료는 그 중의 한 가지 유형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완벽한 구어 자료로 쓰기에 몇 가지 제약이 있다고 볼 수 있다. TV 인터뷰 프로그램의 특성상 사전에 제작진과 협의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담화의 진행 방향이나 편집이 되는 부분도 제한된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말화의 특성이 방송이라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나타날 것이라 전제하였고 담화표지의 운율적 특징을 파악하고 화용적 기능을 고찰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고 보았다.

전사 작업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의 귀에는 담화표지를 걸러 버리는 보이지 않는 망이 있다고 생각된다. 반복적으로 들어야 겨우 들리는 담화표지가 있는데 일상 언어생활에서 이러한 담화표지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흘려 듣게 되지만, 청자는 담화표지를 통해서 화자의 발화 심리를 눈치 챌 수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 고찰한 결과 담화표지 ‘이제’는 시간부사 ‘이제’에 비해 발화 길이가 짧고, 선행 발화나 후행발화에 쉽과 함께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시간부사라 할지라도 화자의 발화 심리에 따라 담화표지보다 발화 길이가 더 짧을 수도 있고, 쉽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 앞뒤에 나타나는 쉽을 살펴보면 쉽이 나타나지 않고 ‘이제’가 선·후행 발화에 연결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쉽 없이 ‘이제’가 앞뒤 발화에 연결된다는 것은 ‘이제’ 자체가 쉽의 역할을 하는 것

으로 보인다. 언론에 종사하는 숙달된 사람들이나 혹은 강의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쉽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에 비해 일반 화자들은 쉽 대신 이러한 담화표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쉽은 억양 단위에 해당하며 생각의 마디를 나타내기도 하며 후행 발화에 집중하게 하는 역할도 한다. 그리고 발화를 이어가는 화자뿐만 아니라 청자의 부담도 덜어 주는 역할을 한다. 그 외에 담화표지 ‘이제’는 선행 발화와 후행 발화를 의미적으로 연결하거나 후행 발화를 강조하거나 망설이면서 발화를 지연시키는 등의 화용적 기능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본고에서는 ‘이제’가 [시제 전환 표지]로서 담화에서 구현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글말 담화와 달리 입말 담화는 문장이 완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시제가 모호하게 표현되거나 과거시제 대신 현재 시제로 표현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이제’를 사용함으로써 화자와 청자가 발화 시각이 아닌 담화 속 사건이 발생한 시각에 현장에 함께 있는 듯한 착각을 유도한다. 일시적으로 시제를 전환하는 ‘이제’를 통해 사건을 보다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고, 화자와 청자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친밀감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시제 전환 표지]는 ‘이제’가 시간의 부사라는 어휘적 의미에서 비롯되었고 상황의 전환을 암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화자의 발화 습관에 따라 ‘이제’를 담화표지로 주로 사용하는가 하면, 시간부사로 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담화표지로 ‘이제’를 많이 사용하는 화자는 그 사용 횟수에 있어서 다섯 배 정도 많은 사용 횟수를 보여 주었다. ‘이제’를 시간부사로 주로 사용하는 화자도 담화표지 ‘이제’ 대신에 또 다른 언어적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담화표지 ‘이제’의 화용적 기능을 대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논의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담화표지는 여러 가지 화용

적 기능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즉 ‘쉽’ 대신에 ‘이제’를 발화하면서 [시제 전환 표지]로도 사용할 수 있고, 담화를 전개하는 기능과 후행 발화를 강조하는 기능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시간부사와 담화표지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담화표지의 화용적 기능을 명확하게 판가름하는 것 또한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언어는 일정한 규칙에 의해 지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몇 개의 단어를 아무렇게나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과 원리에 맞게 결합시켜야 올바른 문장이 되듯이, 입말 담화에서는 정확한 발음과 운율적 자질까지 더해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문헌

1. 단행본

- 고도홍·정옥란 외 공편(2001), 『음성 및 언어 분석기기 활용법』, 한국문화사
- 문병우(2002), 『한국어 화용표지 연구』, 국학자료원.
- 박종덕(2005), 『경상도 방언의 모음체계 변천사』, 도서출판 박이정.
- 서정수(2005), 『한국어의 부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 손남익(1995), 『국어 부사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 송경숙(2002), 『담화분석:대화 및 토론 분석의 실제』, 한국문화사.
- 송경숙(2003), 『담화 화용론』, 한국문화사.
- 양병곤(2003), 『프라트(Praat)를 이용한 음성분석의 이론과 실제』, 만수출판사.
- 오정란(1997), 『현대국어음운론』, 형설출판사.
- 유필재(2006), 『서울방언의 음운론』, 월인.
- 이기문·김진우·이상억(2000), 『국어음운론』, 학연사.
- 이성범 외(2002), 『화용론 연구』, 태학사.
- 이원표(2001), 『담화분석:방법론과 화용 및 사회언어학적 연구의 실제』, 한국문화사.
- 이익섭·이상억·채완(1997), 『한국의 언어』, 신구문화사.
- 이종철(2004), 『국어 표현의 화용론적 연구』, 도서출판 역락.
- 이진호(2005), 『국어음운론 강의』, 삼경문화사.
- 이호영(1997), 『국어 운율론』, 한국연구원.
- 임유중(1999), 『한국어 부사 연구』, 한국문화사.
- 정연창(2000), 『담화기능론』, 한국문화사.

- 정희자(2002), 『담화와 추론』, 한국문화사.
- 최현배(1971),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허용 외(200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개론』, 도서출판 박이정.
- Adams · Galanes(1991), 『Communication In Groups : Application and Skills』, McGraw-Hill.
- Ann Wennerstrom(2001), 『The Music of Everyday Speech : Prosody and Discourse Analysis』, Oxford.
- Deborah Schiffrin(1987), 『Discourse marke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ef Verschuren(1998), 『화용론 이해』, 김영순 · 지인영 · 이정화 역, 도서출판 동인.
- Nancy Bonvillain(2002), 『문화와 의사소통의 사회언어학』, 한국사회언어학회 편, 한국문화사.
- Norman Fairclough(2004), 『대중매체 담화 분석』, 이원표 역, 한국문화사.
- Wallace Chafe(2006), 『담화와 의식과 시간』, 김병원 · 성기철 공역, 한국문화사.

2. 논문

- 강희숙(2005), “소설 『태백산맥』의 화용론-담화표지 ‘와, 웨, 잉’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57, 한국언어문학회.
- 구종남(1999), “담화표지 ‘어디’에 대하여”, 언어학 7-3, 대한언어학회.
- 권선옥(1985), “한국어 시간부사의 의미분석”,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희(2004), “담화표지 ‘인자’의 정보 유도과 응집성 실현”, 한국어의미학 15, 한국어의미학회.

- 김규현(2000), “담화와 문법 : 대화분석적 시각을 중심으로”, 담화와 인지 7, 담화인지언어학회.
- 김영철(2004), “우리말 담화표지의 기능 고찰-‘거시기’를 대상으로-”, 한국언어문학 52, 한국언어문학회.
- 김영철(2008), “우리말 담화표지 ‘자’ 고찰”, 국어문학 45, 국어문학회.
- 김은정(1998), “담화표지 ‘그래·글쎄·아니’의 기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향화(2002), “한국어 담화표지에 대한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향화(2005), “담화표지 <말이다>에 대한 고찰”, 중국조선어문 2005-2, 길림성 민족 사무위원회.
- 김희섭(1994), “음절의 소리 자리 매김 기능”, 우리말연구 4, 우리말학회.
- 김희섭(1999), “한 소리 , 두 소리 혹은 바른 소리”, 우리말연구 9, 우리말학회.
- 남길임(2007), “국어 억양 단위의 통사적 상관성 연구-구어 독백 말뭉치를 중심으로”, 어문학 96, 한국언어학회.
- 노은희(1997), “대화에서 반복표현의 성립조건과 유형”, 국어교육연구 4,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문병우 (2002), “화용표지 ‘-요’에 대한 연구”, 경상대학교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박근영(2000), “‘거시기’의 문법화”, 한국어 의미학 7, 한국어의미학회.
- 백용학(1999), “영어 담화표지 유형”, 동아대학교 동아논총 제 36 집.
- 서상옥(1993), “영어 담화표지의 개념구조”, 현대영어영문학 38, 한국현대영어영문학회.
- 서희정 (2010), “한국어 교육 항목으로서 담화표지 ‘말이다’에 대한 고찰”, 이중언어학 제 43호, 이중언어학회.

- 성선녀(2009), “유사언어가 공신력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성우의 음성언어 표현을 중심으로”, 한국스피치커뮤니케이션학회 학술대회자료집, 한국소통학회.
- 심정애(1990), “시간부사의 통사 · 의미적 특성에 따른 분류 시안”, 수련어문논집 17, 수련어문학회.
- 안병섭(2008), “국어 운율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주호(2009), “한국어교육에서의 담화표지 위계화 방안”, 한국어교육 2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양병곤(2000), “Praat를 이용한 숫자음의 음향적 분석법”, 음성과학 7-2, 한국음성학회.
- 양병곤 · 서준영(2007), “말하기 속달도에 따른 대학생 집단별 억양곡선 고찰”, 음성과학 14-7, 한국음성학회.
- 양영하(2002), “구어담화에 나타난 ‘쉴’의 기능”, 담화와 인지 9-2, 담화인지언어학회.
- 우인혜(1991), “우리말 시제/상 표현과 시간 부사”, 한양어문 9, 한국언어문화학회.
- 이기갑(1995), “한국어의 담화 표지 ‘이제’”, 담화와 인지 1, 담화인지언어학회.
- 이기갑(1996), “한국어 첨가 구문의 담화론적 해석”, 국어학 27, 국어학회.
- 이도경(2005), “영어 강세의 이론과 지도 방안”, 언어과학연구 32, 언어과학회.
- 이봉선(1998), “국어 담화표지 ‘거시기’의 의미분석”, 현대문법연구 13, 현대문법학회.

- 이성하(2008), “문법화 연구에서의 구어의 의의”, 언어과학연구 47, 언어과학회.
- 이옥주(2009), “담화적 맥락에서 말하기”, 중국어문학지 31, 중국어문학회.
- 이정애(1999), “국어 화용표지의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철우(1982), “현대 국어 시간부사의 의미·통사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항규(1998), “시간부사 의미연구를 위한 시론”, 선청어문 1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 이호준·박종철(2007), “담화표지의 음성언어적 특성과 음성합성 시스템에서의 활용”, 제19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
- 이희정(2003), “한국어의 [그러-]형 담화표지 기능 연구 -일상대화 분석을 바탕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규홍(1996), “국어 담화 표지 ‘인자’에 대한 연구”, 담화와 인지 2, 담화인지언어학회.
- 임규홍(1998), “국어 ‘말이야’의 의미와 담화적 기능”, 담화와 인지 5-2, 담화인지언어학회.
- 장영미(2010), “시간부사 “지금”과 “이제”의 비교 연구”, 중국조선어문 2010-5, 중국조선어문.
- 전영옥(1999), “한국어 담화에 나타난 반복 표현의 기능”, 한국어의미학 4, 한국어의미학회.
- 전영옥(2002), “한국어 담화 표지의 특징 연구”, 화법연구 4, 한국화법학회.
- 전영옥(2003), “한국어 억양단위 연구-통사적 특징을 중심으로”, 담화와 인지 10-1, 담화인지언어학회.

- 조미정(1996), “Morphosyntactic Roles of Grammatical Verb Ha”, 언어학 21-4, 한국어언어학회.
- 주미경(1999), “위치와 기능의 관점에서 본 담화표지 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논문집 24.
- 주지연(2008), “한국어 지시어 ‘이’, ‘그’, ‘저’가 결합한 시간 표현 부사의 통시적 연구”, 관악어문연구 33,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차윤정(2000a), “이음말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차윤정(2000b), “이음말의 담화표지 기능”, 우리말 연구 10, 우리말 학회.
- 채영희(1998), “담화에 쓰이는 ‘-거든’의 화용적 기능”, 한국어 의미학 3, 한국어의미학회.
- 최영자(2003), “현대국어의 담화표지 연구”,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종선(1991), “국어의 시간어 연구-시간부사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2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